



지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부드러운 비행

중대형 세단을 위한 프리미엄 타이어의 완벽한 진화

N FERA AU5

① 탁월한 승차감 _ 비대칭 패턴디자인, 강성 최적 배분, 블록 균등 분할로 향상된 진동감소

② 소음방지 기술 _ 그루브의 폭 설계 및 블록 균등 분할로 접지면 타이어 소음 최소화

③ 마일리지 및 연비향상 _ 균일 접지 최적화로 이상 마모 방지, 신소재 기술 적용으로 마일리지 향상, 에너지 손실 최소화

④ 프리미엄 패턴 디자인 _ 비뮈디 사계를 향상화하여 성능과 효율성, 품격의 극대화



N FERA RU5 SUV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RU5

NEXEN 넥센타이어

www.nexentire.com 고객센터센터 ARS 1577-2781

넥센타이어



Hello NEXEN facebook

헬로우 넥센

HELLO NEXEN

2013 가을호



여가시간

CONTENTS

Nmind

- 04 Read
지하에서 지상으로
- 08 Learn
열정으로 성공을 일군 우리 시대 멘토
- 12 Interview
야구 해설위원 이승용
- 16 Ultra Mania
그림 그리기 마니아 울산지점 김은진 사우
- 20 Team Story
(창)재료파트 준비공정의 영화 관람 회식
- 24 Culture
뜨거운 사나이들의 영화

Nlife

- 26 Drive & Leisure
내장산, 색채의 마술에 걸리다
- 32 Family Day
박정석 대리 부부의 물레 도자기 체험
- 36 About Food
팔도 명가 전통주
- 40 Project N
도전 사우들의 결실을 축하하며
- 44 Money Tip
소비 습관에 맞는 신용카드 찾기
- 46 Happy Together
생산2팀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 50 Wide Road
로렐라이 전설 속 라인 강변을 달리다
- 54 N Photogenic
우리는 넥센 패밀리

Ncompany

- 56 Mentor & Mentee
그 선배 그 후배의 별 헤는 밤
- 60 Car & Tire
타이어 효율 향상의 비결
- 62 Tire Tech
타이어테크 가든파이버점
- 66 On Air
Big Challenge by Healing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70 News Center
넥센 뉴스
- 76 농반진반
나는 이런 초능력 갖고 싶다
- 78 @hellonexen
기쁜 우리 좋은 날
- 79 Epilogue
퀴즈 및 당첨자 발표



표지 이야기

빛이 태양에서 시작되고
만물이 그로부터 힘을 얻듯이,
우리의 반짝이는 삶도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기준도, 한계도 없는 당신 안의
열정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3년 가을호 통권 53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3년 10월 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어P&M (02-795-3364) | 디자인 백선영, 김지선, 장윤희 |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熱情

내가 가장 뜨거웠던 순간.
무언가를 열망하고,
주저 없이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쳐도 좌절하지 않던 그때.
혹시나 지금 망설이거나 겁을 내며
주춤하고 있다면 내 안의 열정을
다시 한 번 깨워보자.

나는 지하에서 부터 시작했다

저는 요즘 강연을 많이 합니다. 제법 인기 있는 강사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발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하 2층

2001년경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던 때,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와 같은 함성 속에 상대선수를 링의 막다른 코너 쪽으로 집어 던지곤 전속력으로 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갑자기 피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링 바깥의 쇠기둥에 얼굴을 들이박고 말았죠.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듯 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상태였지요. 앞니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했지만 얼마 후 열린 경기에서 또 그 이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저를 수술대 위에 눕히지 않겠다는 마음이셨는지 제 직업 특성을 잘 파악하신 것인지 의사선생님은 임플란트 치아를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박아' 주셨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이 티코라면 지금의 이는 지프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허끝 부분과 이가 부딪혀 허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죠. 당시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던 터라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차례 공리를 하다가 허의 영점 위치, 즉 기준 위치를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 입천장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허끝이 윗니와 입천장의 중앙지점을 터치하면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입천장을 살짝살짝 치면서 발음하는 것이죠. 읽기 쉬운 아이들 동화책부터 신문 기사, 고전 소설까지 큰소리를 내며 연습하자 자연스럽게 들을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새는 발음, 허 짧은 소리에 당황하던 라디오 DJ와 이 게스트를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던 PD의 얼굴이 퍼진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지하 1층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지요. 블로그에 자기 계발에 관해 연재한 글로 <청춘 매뉴얼 제작소>라는 책을 출간하고 강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연 날, 강연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통유리 너머로 한 시간에 수천 명이 지나다니고, 입·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그나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잠깐 시간을 때우러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인 곳이었지요. 언제나 그렇듯 좋지 않은 예감은 정확하게 들어맞더군요. 강연하는 약 한 시간 동안 제 말에 집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아무런 영양가 없이 그저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그곳은 강연 장소로는 정말 최악이다. 그런데 훈련 장소로는 최고대!'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에 무료로 강연하겠다고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강연이지만 역시나 첫 달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강연장에 있는 사람 중에 저에게 신경을 쓰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두 달째가 되자 중요 부분에선 제스처도 취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석 달째, 드디어 청중과 교감하면서 제 진의를 전달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정보와 감정을 함께 실어 보내고 그들의 반응을 캐치해 다시 피드백해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부터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강연하는 김남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상으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의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1999년 프로레슬링에 처음 입문했을 때도 저는 일반 회사원 출신으로 다른 종목에서 챔피언벨트, 금메달을 딴 이들과는 급이 달랐습니다. 협회의 높은 사람들과 유망주들이 소갈비를 먹을 때 저는 달려 나오는 뒷장 찌개에 밥을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방송 일도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신문지를 깔고 옷을 갈아입고, 다른 출연자들 촬영이 끝날 때까지 탈을 뒤집어쓰고 야외에서 대여섯 시간을 기다리곤 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1층도 아닌 지하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올라갈 때에도 저는 어두운 지하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의 몇 배로 노력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열정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제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목적지를 한 번 더 되새기며 끊임없이 오르다보니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일본 DDT 14대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는 날도, 공중파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는 날도 오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이들에게 어둡고 깊은 지하는 아마 공포의 영역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란 하강의 의미를 넘어 추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한 번 추락의 두려움을 겪은 사람은 처음부터 걸어 올라갈 용기를 내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열정과 끈기로 그 과정을 견뎌온 사람들은 그 느낌을 쉬이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시 도약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지요. 열정으로 쌓아온 날들은 결코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언제나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¹⁰

열정 성공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을 일구다!

흑자는 말한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열정은 뜨거운 마음을 따라 몸이 움직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 이름을 날린

우리 시대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노력에는 끝이 없다

유재석

지금은 '유느님'이라 불리는 이 남자도 시작은 미미하다 못해 초라했다. 낱고 기는 동기들 사이에서 방청객마냥 박수만 친 적도 있고, 선배들의 기에 눌러 NG를 연발하는 바람에 눈총을 받기도 했다. 스스로 성공한 프로그램보다는 실패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하는 유재석은, 그러나 지독한 노력파였다. 그는 매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녹화해 '일시정지(II)' 버튼을 누른 채 선배 예능인들의 질문과 답을 따라 하며 입담 훈련에 매진했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토크 프로그램 게스트로 나가 학창시절 경험담을 유난스럽게 풀어낸 것으로 '토크왕'에 뽑힌 것. 그날을 기점으로 유재석은 혼자서 많은 게스트를 이끄는 버라이어티 쇼의 메인 MC까지 올랐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동시에 재미를 잃지 않는 유연한 진행 능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MC로 거듭났다. 쉼 없이 달리는 프로그램을 위해 담배를 끊고, 후배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앞자리를 양보하고, 언젠가 지금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다시 바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그는, 그래서 매일 새로이 노력하는 열정의 표상이 되었다.

공부의 꿈을 심다

강성태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학습지와 학원, 과외까지, 학교 담벼락 밖에선 여러 강의가 횡행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공부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이에 서울대학교에 나란히 입학해 룸메이트로 지내던 강성태, 강성영 형제는 자신들의 공부 방법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공부법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여름방학을 꼬박 바쳐 주변 친구들과 자신들의 공부법을 연구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강의 동영상을 촬영해 편집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공부의 神이 되자는 의미의 '공신' (www.gongsin.com). 하나둘 모인 대학생 멘토들은 수험 생활 중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노하우 등 현실적인 공부법을 조건 없이 공유했고, 이를 본 학생들은 선배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려던 공부에 다시 매진하게 되었다. 현재 '공신'은 인도네시아까지 전파되어 국내외에서 승승장구하며 많은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겠다는 강성태 대표의 꿈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열정을 양분 삼아 '공신' 안에서 쑥쑥 자라는 중이다.



실패해야 성공한다 김영희

방송가에서도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 프로듀서 김영희. 어떤 일에 처음 발을 디뎠다는 것은 곧, 그 전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김영희 PD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일을 성공이라 여겼다.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진심과 노력. 시대를 풍미했던 <몰래카메라>부터 <칭찬합시다>, <느낌표>, <나는 가수다>까지 다양한 그의 연출작은 모두 ‘안 된다’는 타인들의 반대 속에 태어났다. 스타를 골탕먹여 시청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인문교양 프로그램에나 어울린다는 책을 다뤄 베스트셀러 순위를 뒤집어 놓고, 쟁쟁한 가수들을 한데 모아 경연을 벌이게 했던 프로그램의 뒤에는 항상 반대에 맞서 최선을 다한 김영희 PD의 땀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처음인 만큼 수많은 실패를 거쳤고, 그럼에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하지만 김영희 PD는 자신의 모든 성공이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기어이 빛을 보게 된 것들이 흔히 알려진 ‘대표작’이 되었을 뿐, 대중에게 잊힌 실패의 기억들 또한 성공과 다름없이 귀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말이다.



네 멋대로 해라 이석우

학창시절 동양 역사에 재미를 붙여 교수가 되고 싶었던 소년은 국제부 기자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얼마 후 로스쿨에 진학해 국제변호사가 되어 컴퓨터 회사의 변호사로 일하던 중 IT에 관심을 갖고 관련 회사에 입사, 곧 자신의 회사를 차린다. 바로 카카오 CEO로 유명한 이석우 대표의 이야기다. 그의 삶을 이끈 것은 ‘좋아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재밌고 좋다고 느끼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현재의 삶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에게도 원칙은 있다. 멋대로 살되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이곳에 자신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만 자유로운 삶 또한 의미를 갖는다. 또 한 가지, 자유로이 꿈을 꾸되 그것이 꿈으로만 그치도록 두지 않는 것.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꿈은 결국 몽상일 뿐이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 직업을 경험해온 이석우 대표 또한 좋아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기자도, 변호사도,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IT 기업의 CEO도 되지 못했을 거란 말씀. 그래서 그는 말한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네 멋대로 하라고, 꿈의 지도 위에 발을 딛고 그곳에 실재하는 자신만의 영토를 일구어 보라고.

끈기도 실력이다 최종일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전 세계 90여 개국에 울려 퍼지는 유쾌한 노래의 주인공인 뽀로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바꾼 <뽀롱뽀롱 뽀로로>를 만든 최종일 대표의 신화는 신출내기 애니메이션 PD 시절 하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한국은 애니메이션 기획을 하지 않고 제작만 하는가?” 그 어느 분야보다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한국은 미국, 일본 등에서 기획된 작품들의 작화 작업만을 주로 하는 애니메이션 하청국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일 대표는 기획을 지향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목표로 작품 구상을 시작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 뽀로로를 만들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천재적인 발상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아닌 집요한 상상력을 꼽는다. 기획의도가 작품에 100%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나리오 형식을 바꿨고, 아예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더 많이, 더 깊게 고민하는 자가 이긴다는 믿음으로 집요하게 열정을 쏟았고, 결국 최종일 대표는 뽀로로와 함께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었다.



미치면 이루어진다 김병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찍어내는 남자’ 혹은 ‘신들린 작가’라는 별명을 가진 사나이 김병완은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속한 성실한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어느 가을, 그는 심하게 계절을 땀고 덕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회의를 느껴 장렬히 사표를 던졌다. 그리곤 부산으로 내려가 천일 동안 한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었다. 하루 10시간에서 15시간 교박 책을 읽으니 3년이 다 될 즈음에는 독파한 책이 1만 권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그는 미친 듯이 글쓰기에 몰두했다. 결국 김병완은 평범한 샐러리맨 대신 작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시 세상에 나온다. 1년 6개월 동안 그가 낸 책은 무려 33권. 김병완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책에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책에 완벽하게 미쳤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의식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는 작가의 서른한 번째 책 제목 그대로, 그는 미쳤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제 것으로 완벽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④





영원한 캡틴



이승용의 열정



2011년 9월 18일, 넥센히어로즈의 홈구장인 목동야구장에 한 사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18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이승용의 은퇴 소감이었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당시 그의 한마디. “나는 행복한 선수였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났다.

아직도 이승용을 보면 2007년, 현대유니콘스의 마지막 해가 떠오른다. 기업의 지원이 중단되고, 팀 역시 연패에 빠진 최악의 상황이었다. 선수들의 의욕이 저하될 법도 한데 현대유니콘스의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였다. 선수들은 오늘 경기는 꼭 이기겠다는, 아니 꼭 이길 수 있다는 의욕에 불타오른 듯 보였다. 그들 중에서도 이승용은 더욱 남달랐다. 연습 스윙을 끝내고 팀원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진중함과 열정이 배어 있었다. 오늘 경기에 어떻게 임할 거냐는 물음에 덩수룩한 수염의 과묵한 사내는 이렇게 답했다.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날 현대유니콘스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그의 말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였을까. 늘 그렇게 최선과 노력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져온 이승용을 2013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넥센히어로즈에서 은퇴한 뒤 해설자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던 선수

이승용은 현역으로 뛰던 시절 평균 타율 2할8푼1리로, 대부분 한국 야구 역대 기록에서 20위권 이내의 성적을 기록했을 만큼 좋은 선수였다. 하지만 포지션별로 그해의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를 받아본 적도, 올스타로 선정된 적도 없었다. 그러나 2007년, 이승용은 프로야구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서 골든글러브



Hello **NEXEN**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 당시 성적도 뛰어나지만 평소 매너 있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로 구성된 후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경쟁했다. 그런데 이 상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승용이 되었다. 상별위원들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의 주장으로서 매 경기 성실한 자세로 좋은 성적을 거둔 그의 모범적인 면모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그래서 이승용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 라는 말이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2,000경기 출장 기록이다. 역대 6번째지만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18년간 한 팀에서만 출장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이자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것이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해 다른 팀에서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 제의가 왔을 때도 그는 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적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보다 팀, ‘사람’ 이었다.

“좋은 사람, 좋은 팀을 떠날 수 없었어요. FA로 자유의 몸이 된 선수들이 팀을 떠날 때 ‘자의가 뒀든 타의가 뒀든 영원한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다시 선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좋은 사람,
좋은 팀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는 기복이 있고 절정이 있다. 2011년 은퇴식은 그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생의 마침표였다. 수많은 팬들이 이승용의 은퇴식이 열린 경기장을 찾았고,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표현이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야구를 팬들이, 동료들이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과거의 회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넥센히어로즈의 영원한 캡틴

이승용에게 가장 유명한 수식어는 ‘영원한 캡틴’ 이다. 끈끈하게 하나로 단결되는 넥센히어로즈 특유의 팀 분위기는 이승용이 현대유니콘스 시절부터 노력한 영향도 분명 있을 터. 자신 역시 기록보다는 5번의 주장 경력이 자부심이라고 말할 정도다. “저를 3할 타자라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실제로 3할을 넘은 적은 세 번이었죠. 그보다 중요한 건 한 팀에서만 18년을 보내며 2,000경기를 뛰었다는 거예요. 팀의 주장으로서 구성원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한 것 또한 제 자부심이고요.” 이승용이 리더로서 팀에 많은 기여를 한 여러 일화는 이미 너무도 유명하다. 스무 살이나 어린

선수들과 소통하기 위해 알지도 못하던 걸그룹 이름을 외웠고, 선수들의 가족관계나 혈액형을 체크한 뒤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처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의 고민은 하나였다. ‘어떻게 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현대유니콘스에서 넥센히어로즈로 팀이 바뀌면서 선수들의 동요도 있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앞장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선수들이 트레이드되어 떠날 때마다 여자 친구가 떠나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반대로 오는 선수들에게는 빠른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더 노력했고, 결국 좋은 팀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완벽한 팀은 나아가기보다 지키려 노력하지만, 부족한 팀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가 18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것도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자각 덕분이었는지 모른다. 한 번도 타이틀을 획득한 적은 없지만 늘 기복이 없었던 이승용이었기에 영원한 캡틴이 되었는데.

늘 큰 기복 없이,
팀 선수들을
애정으로 보살펴온
이승용이었기에
영원한 캡틴으로
불리는 것이리라.

이승용의 야구는 현재진행형

은퇴 후 이승용은 해설자로 변신했다. 넥센히어로즈가 지도자로서의 길을 열어줬지만 그는 장고 끝에 해설자의 길을 택한 것. 야구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필드 위에서처럼 야구 해설도 치열한 전쟁터였다. 누구 하나 진득하게 붙잡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해설을 시작하자마자 국내 해설자들의 경기를 모두 찾아보며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해설을 하려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제2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그 결과 그라운드 안팎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가끔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단다. 역으로 이승용의 해설을 후배들이 모니터링해주기도 한다. 이미 해설가로 변신했지만, 출신 선수로서 넥센히어로즈를 눈 여겨 보는 것은 당연한 일. 그가 예상하는 올 시즌 넥센히어로즈의 성적은 매우 긍정적이다.

“올해 넥센히어로즈를 맡은 염경엽 감독의 전략이 다양한데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감독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군 선수를 2군 리그로 내려 보내면 대부분 선수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하겠죠. 그런데 넥센히어로즈 선수들은 염 감독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할 겁니다. 넥센히어로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이런 정신은 팀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입니다. 또 전체 시즌을 생각한 덕에 선수들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치러와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이기는 맛을 알아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에게 남은 꿈은 감독이 되어 다시 우승을 거두는 것이다. 역시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답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¹⁰



울산지점 김은진 사우

화폭 가득, 행복을 그리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꽃, 나무, 돌도 그녀의 시선이 닿아
붓으로 옮겨지면 살아있는 작품이 되고 행복이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화폭 가득 일상의 행복을 담아내는 김은진 사우를 만났다.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여자

상큼 발랄한 에너지를 뽐어내는 스물한 살의 김은진 사우.

그녀가 보람찬 하루 업무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방 한켠에 마련된 자신만의 화실이다. 한창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을 나이인데도, 그녀는 주말은 물론 퇴근 후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어김없이 붓을 든다. 음악을 들으며 화폭을 채우는 일이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림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취미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든요.

한창 큰 그림에 몰입할 땐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요(웃음).”

꽃다운 처녀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갤러리 카페 가득 울려 퍼진다.

주인만큼이나 싱그러운 그녀의 그림은 딱히 정해진 장르도, 주제도 없다.

아크릴화, 수묵화, 수채화 등 장르 불문. 풍경, 사람, 자동차 등 주제 불문.

도저히 카테고리 분류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누가 넥센타이어 직원

아니랄까봐 어쩔 타이어도 빼놓지 않고 그려놓았다.

“뭐든 그려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리기도 하지만 주로 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예요. 꿈에서 본 듯한 것도, 제가 꿈꾸는 세상도 그리고요.

뭐든 자유롭게 담고 있어요. 좋아서 하는 일에 제한을 두고 싶진

않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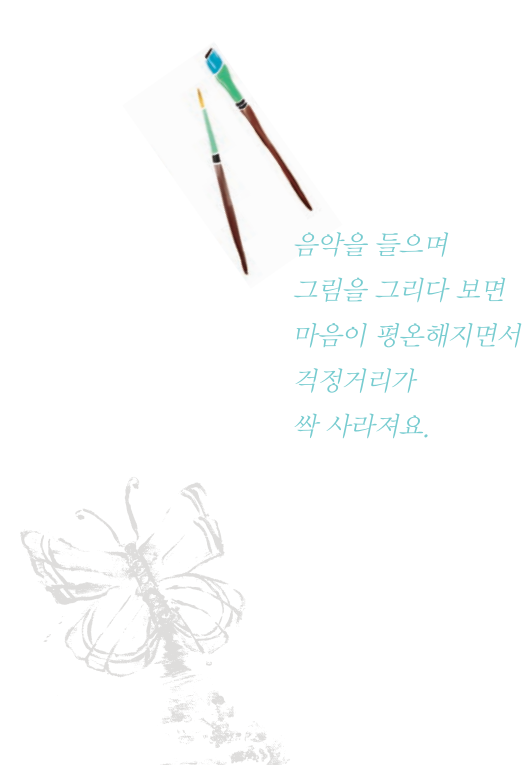
만화를 좋아했던 소녀, 삶의 균형을 찾다

그저 좋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김은진 사우는 정식으로 그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일까. 그림 한 점, 한 점에서 그녀만의 개성이 담뿍 묻어난다. 가끔 디테일을 놓치거나 색이 번지는 등 크고 작은 실수도 하지만 그리면 그릴수록 조금씩 실력이 쌓이는 재미가 꽤 쏠쏠하단다.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신들린 듯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아니었다. 만화를 무척이나 좋아해 학창 시절 내내 애니메이션부였다는 김은진 사우. 지금과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도 그림을 좋아했고, 각종 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경력도 있다.

마을 벽화 사업을 돕기도 했을 만큼 그림에 관심이 많은 그녀의 꿈은 한때 애니메이터였다.

“처음엔 애니메이션 속 알록달록한 색깔에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 역시 저한테 그림으로 성공할 것 같진 않다고 객관적으로 말해주었죠(웃음). 당시엔 참 냉정하다 싶었는데,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걱정거리가
씩 사라져요.



김은진 사우의 그림 그리기 취미활동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행복 에너지를 전한다.

결국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빅센타이어에 와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장에서 인정받고,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니 삶이 더 윤택해지더라고요. 이제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림으로 전하는 행복 에너지

그녀의 취미활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하기도 한다. 가끔 친구나 회사 동료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물할 때면,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에 감동하며 그녀의 숨씨와 따뜻한 마음 씬씀이를 칭찬한다.

“작년이 용의 해였잖아요. 지점에 용 그림을 선물하고 싶어서 하루 2시간씩,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렸어요. 지점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며 액자로 만들어 지점에 걸어두신 거 있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다음번엔 십이간지를 그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림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행복을 전하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아직 가보지 못한 국내 여행지를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화폭에 담아 더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또 어머니 생신 땐 어머니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해 드릴 예정이다. 물론 캔버스 뒤에 돈 봉투도 붙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는 김은진 사우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¹⁹





뜨거운 형제들의 문화 회식

(창)재료파트 준비공정, 영화관에 뒀다!

남자들끼리 가기엔 멋쩍은 장소 중 하나인 영화관.

이곳에 젊은 남자 여러 명이 우르르 모였다.

(창)재료파트 준비공정 사우들이

모처럼 짬을 내어 영화 관람에 나선 것.

이날 관람했던 영화 만큼 거침없는 에너지를 보여준

그들의 문화 회식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회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

평균 나이 28세. (창)재료파트 준비공정의 사우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이다. 오늘 단체 영화 관람 소식을 듣고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단번에 'OK'를 외쳤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걸 보니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에너지가 넘친다 싶다.

“술만 마셔대는 회식,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안 통하죠. 저희 주로 야외로 놀러 다녀요. 얼마 전에는 비슬산 계곡에 다녀왔네요.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요. 술 마시며 흥청망청 노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팀워크도 다질 수 있잖아요.”

사실 직장인들의 회식이란 뻔하지 않나. 고깃집, 호프집, 노래방..., 대부분이 '마의 트라이앵글' 안에서 해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창)재료파트 준비공정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들의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곤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진다.

전담 요리사이자 분위기 메이커 정상현 사우를 주축으로 한 '회식 아이디어뱅크'가 있어 시즌에 맞는 장소를 알아서 물색한다는 것.

이미 지난겨울엔 스키장, 여름엔 계곡에 다녀왔더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버라이어티한 회식 경험을 보유한 파트답게 혹시 다 함께 영화를 본

적도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처음이란다. 창녕에선 영화관

자체도 구경하기 어려운 탓이다. 창녕에서 대구까지 차로 40분 거리,

여기까지 왔는데 실망하고 가면 되겠느냐며 모두 영화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인다.





사고 · 저효율과의 전쟁 : 넥센타이어 전성시대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는 이들이 포진한 곳은 (창)생산팀의 재료파트 준비공정. 타이어 재료로 쓰이는 고무를 관리하고 각 재료를 일정 크기로 재단하여 다음 공정에 공급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창녕공장은 물류 이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적재된 재료를 필요한 사람이 클릭만 하면 가져갈 수 있죠. 충돌의 위험성도 적고,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최신식 설비가 도입된 창녕공장에서 ‘안전’ 만큼은 최상으로 보장된다. 사고율 0%를 위해 팀원들이 평소 설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다. 4개 조 3교대로 근무하며 적정 컨디션을 유지, 불량률을 현저히 낮추었으며 손발이 척척 맞는 찰떡 팀워크로 생산성을 더욱 높였다. 하지만 재료를 적기에 공급하느라 시간에 쫓겨 생기는 업무적 견해차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럴 때마다 파트원들은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눈빛만 봐도 알아서 움직일 정도란다.

설국열차에 몸을 싣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영화가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다. 서둘러 극장으로 향하는 사우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오늘 이들이 관람할 영화는 수많은 후보작 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설국열차>다. 여자 친구와 함께 보기로 했다면 몇몇 사우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화끈한 경상도 사나이들답게 결국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단다. <설국열차>는 빙하기를 맞은 인류의 유일한 생존 공간 ‘설국열차’ 꼬리 칸에 살던 가장 낮은 계급의 남자가 반란을 일으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유혈 난자한 액션 신이 영화의 모미. 한 칸 한 칸 열차의 앞쪽으로 나아갈 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들에 사우들은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실제 120분이 넘는 상영시간이 짧게만 느껴졌다고. “물임도 최고! 눈을 못 떴었던데~ 마무리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 삼삼오오 모여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느라 왁자지껄한 사우들. 그 모습을 보는 유경열 직장은 그저 흐뭇하기만 하다. “다함께 영화 본 건 처음인데, 반응이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더 화기에애해진 것 같아요. 자주자주 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화 감상문 1장씩! 알지?” 스릴 넘치는 액션영화로 한바탕 신나게 즐긴 (창)재료파트 준비공정의 사우들. 오늘의 영화 관람 회식이 내일이면 다시 시작될 업무의 활력소가 되길 바라본다.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㉞

(창)재료파트 준비공정 사우들의 영화 감상 한마디!

• 황병혁 사우

가난한 꼬리칸 사람들이 기차 엔진을 차지하기 위해 펼치는 처절한 사투를 그려낸 것을 보고 “역시 봉준호 감독이대” 생각했다.

• 류형우 사우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 정상현 사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못했다.

• 한현욱 사우

봉준호 감독만의 상상력과 뛰어난 CG가 잘 어우러져 시각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난해한 스토리와 결말이 조금 아쉽다.

• 박형준 사우

빈부격차는 현재도 미래도 극복할 수 없는 과제임을 느꼈다.

• 전일환 사우

기존 체제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이 인류 발전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 조현두 사우

꼭 양강을 사가서 보라는 주변인들의 이야기ㅋㅋㅋ 그 실체를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 최진열 사우

큰 스케일 덕분에 볼거리가 쏠쏠했던 영화 설국열차.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좋았다. 특히 킬다 스윈튼의 메이슨 캐릭터 소화력은 최고!

• 원제섭 사우

액션과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곳곳에 심어놓은 메시지가 강렬하게 와 닿았다.

• 신무용 사우

전체적으로 재미있었지만 애매한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 김진한 사우

배우들의 연기가 일품이었다. 할리우드 영화에 뒤지지 않는 구성과 연출이 돋보였다.

남자의 계절 가을,

뜨거운 사나이들의 영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한다. 하지만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은 책만 있는 게 아니다. 가슴을 적시는 영화, 열정을 깨우는 영화, 갈증을 해소하는 영화를 통해 가을 ‘잘’ 타는 사나이가 되어보자.



〈3:10 TO YUMA〉

‘난 한번도 영웅이었던 적이 없네’

체포된 전설의 무법자 벤 웨이드를 3시 10분에 도착하는 유마행 죄수호송열차에 태워야 한다! 벤 웨이드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와 그를 구하려는 부하들의 끈질긴 추격에 호송대원들의 목숨이 하나둘 사라져 가는 힘겨운 상황.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호송 대원이 된 댄 에반스와 벤 웨이드는 서로 대립하는 사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긴 두 사나이의 미묘한 우정이 보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 감독 제임스 맨골드
- 출연 크리스찬 베일, 러셀 크로우
- 장르 서부 / 범죄 / 액션 (미국)

〈바람〉

‘나, 관청은 어른이 될게!’

폼 잡고 싶고, 남자다워 보이고 싶었던 고등학교 세 보이는 게 멋있는 줄 알았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불법서를 ‘몬스터’에 빠져 꿈도 없이 대중 사는 짱구와 그런 짱구를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가 자꾸 부딪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간경화로 병상에 눕게 된다. 이 영화는 배우 정우의 실제 이야기로 전부 부산에서 촬영됐고 주연·조연·단역 배우 까지 모두 부산 출신으로 ‘부산 상남자들의 향기’를 푹 느낄 수 있다.

- 감독 이성환
- 출연 정우, 황정음, 손호준
- 장르 드라마 (한국)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날 사랑한다면 책을 읽어줘!’

10대 소년과 30대 여인의 묘한 사랑이 주는 은근한 끌림을 느낄 수 있다.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한나와 마이클. 한나는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항상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나는 말없이 마이클을 떠나버린다. 몇 년 후, 둘은 그녀가 피고인으로 선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마이클은 이제껏 한나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알게 된다.

- 감독 스티븐 달드리
- 출연 레이프 파인즈, 데이빗 크로스, 케이트 윈슬렛
- 장르 로맨스 / 멜로 · 드라마 (미국 · 독일)

〈거친 녀석들〉

‘난 자유가 필요해!’

삶에 지친 당신, 일상 탈출을 꿈꾸지만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영화를 주목하라! 핸드폰도, 찌질한 내 모습도 버리고 바이크 한 대로 거침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중년 남성 4명의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다. 한 여자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라는 책임감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일순간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자신에게 회의를 느끼는 대한민국의 가장, 자유를 갈구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 감독 윌트 벡커
- 출연 팀 알렌, 존 트라볼타, 마틴 로렌스, 윌리엄 H. 매시
- 장르 모험 / 코미디 (미국)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때 날 좋아해 줘서 고마워’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문제아 커징팅과 예쁜 모범생인 선자이.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둘이지만, 커징팅의 교과서를 계기로 친해지게 된다. 열일곱 살의 풋풋한 사랑을 표현하는 두 주인공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학창시절의 순수했던 기억이 절로 떠오른다. 달콤한 스토리에 따뜻한 영상미가 가미된 아름다운 영화. 청명한 바람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을, 아련히 떠오르는 첫사랑의 추억 속으로 빠져보자.

- 감독 구파도
- 출연 가진동, 진연희
- 장르 로맨스 / 멜로 · 드라마 (대만)

〈리얼스틸〉

‘아직은 때가 아니야’

‘로봇끼리 복싱하는 이야기? 유치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로봇이 아닌 실물 크기로 제작된 로봇이 등장해 훨씬 현실성 있는 경기 장면을 묘사한다. 챔피언 타이틀에 실패하고 삼류 프로모터로 지하 복싱 세계를 전전하던 전직 복서 찰리 켄트, 존재도 모르고 지냈던 아들 맥스의 임시 보호를 맡게 된 그는 아들과 함께 고철 로봇 ‘아툼’을 최고의 파이터로 키워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한다.

- 감독 슌 레비
- 출연 휴 잭맨, 에반젤린 릴리, 다코타 고요
- 장르 액션 / 드라마 / SF (미국)



깊은 산, 깊은 색을 찾아 떠나다

내장산, 색채의 마술에 걸리다



Drive & Leisure

색을 탐하고 싶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아기 손바닥만 한 빠알간 단풍잎을 들고서 기뻐하며 책갈피에 꽂는 소녀의 감성을 탐하고 싶다. 가을은 소리 없이 온다. 하지만 가을이 남기고 간 발자국에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 곱디고운 단풍이 남아 있다. 가을 발자국을 따라 내장산 국립공원에 다녀왔다.



내장산은 단풍 구경의 으뜸

가볍게 단풍 구경을 왔다면 굳이 특정 코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내장산은 내장탐방지원센터를 지나면 도로변에서 색을 뽑내는 단풍을 눈이 시리도록 구경할 수 있다. 내장사까지 약 3km 정도 되는 구간 길을 걷는 동안 내장산은 가을 명산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내장산의 단풍잎은 얇고 작다. 더군다나 빛깔까지 곱다. 생김새가 찻먹이 손바닥 같다고 해서 애기단풍이라 불린다. 내장산 단풍색이 화려한 이유는 내장산계곡을 비롯한 원적계곡, 금선계곡 등 물줄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단풍색이 선명하고 화려하기 위한 조건 중에 으뜸이 물이다. 수분공급이 원활해야 고운 단풍이 만들어진다. 도심에서 3km 거리를 걷는 것은 고행에 가까운 일이다. 같은 거리이지만 내장산 단풍터널 길은 고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어른 키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나무가 가로수처럼 솟았다. 그 사이 도로로 달리는 자동차가 알뜰기보다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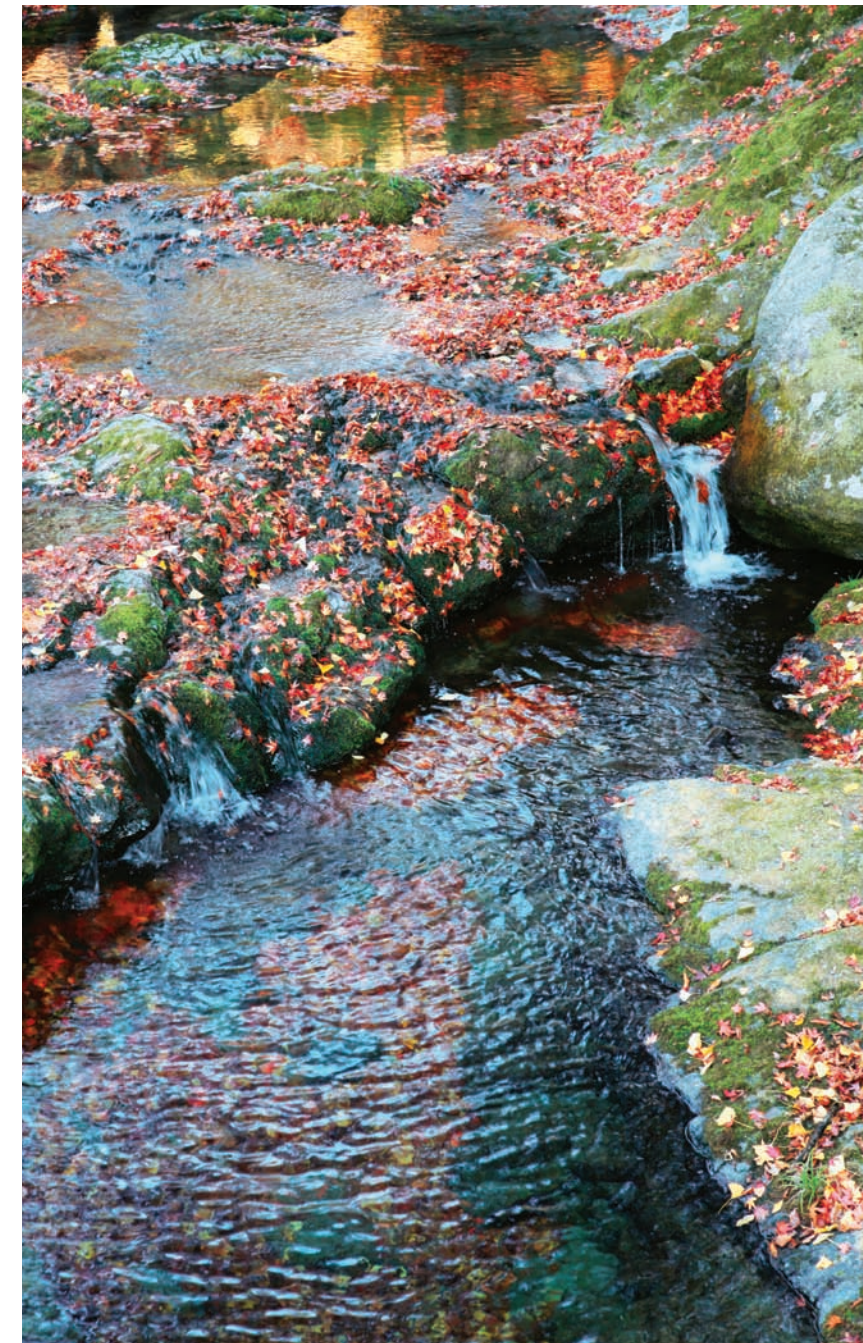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 063-538-7877
- 국립공원 백암사무소 061-392-7288
- 내장산 상가림집지역에 있는 모시떡은 주전부리로 좋다. 모시 잎을 삶아 멥쌀과 섞어 가루를 만들어 바로 찌 낸다. 짙은 녹색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술티에떡 (063-532-7722)
- 단풍 산행을 계획한다면 등산 장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등산화는 기본이고 심한 온도 차를 대비해 보온 재킷도 준비해야 한다.

꽃보다 단풍, 봄보다 가을

자글자글한 주름이 계곡장 마냥 이마에 훈장을 남겼다. 고향 집 부모님들은 여행은 팔자 좋은 사람이나 누리는 호사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네들도 가을 단풍놀이만큼은 연중행사처럼 잊지 않고 즐긴다. 내장산은 다리품을 팔지 않아도 편안하게 가을 색을 구경할 수 있어 더욱 유명하다. 내장산은 8번째로 국립공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리산, 무등산, 월출산과 함께 호남지역의 하늘정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탐방객의 여건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단풍철에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전망대 코스다. 지표면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탄성이 터지는 구간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등산과 함께 내장산의 은밀한 속살을 보고 싶다면 내장산 최고봉인 신선봉(763m)을 발아래 둘 수 있는 신선봉 코스가 좋다. 8km 남짓 거리에 5시간 정도 산행을 해야 하지만, 내장산의 아홉 봉오리를 조망할 수 있어 등산이 주는 매력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내장산이 품고 있는
시원한 물줄기가
단풍색을 곱게,
그리고 화려하게 물들인다.





우화정 주변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단풍터널을 걷다보니 왼편에 콘크리트로 만든 다소 생뚱맞은 정자가 눈에 들어온다. 우화정(羽化亭)이다.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모르긴 해도 승천했던 그 정자는 분명 콘크리트는 아닐 터. 옛날에 이 주변에 내장산성이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과 왜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장소라는 말에 주위가 다시 보인다. 정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우화정 주변에 조성된 꽤 넓은 잔디마당엔 수고했을 다리를 위해 벤치까지 준비해 놓았다. 저마다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닌다. 넓적한 곳에 돛자리를 깔고 색에 취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호흡하는 사람도 있다. 자연이 만든 화려한 색깔에 매료되어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닐까. 소리 없이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드는 기분을 만끽해본다.

소리 없이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드는 기분을 만끽해본다.



내장산이 품은 또 다른 단풍명소 백양사

내장탐방지원센터에서 17km 정도를 달리면 지금껏 본 것과 다른 내장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 지역에 걸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백암산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에 속한다. 백암산의 환한 빛을 발하는 암벽 백학봉은 그 아래 있는 이층 누각 쌍계루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든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옛날이야기가 어찌 없을까. 언제나 그렇듯 때를 알 수 없는 옛날에 흰색 양(羊)이 이곳에 찾아와 자신이 천상에서 죄를 지은 승려임을 밝히고 경전을 외웠다고 한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해서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았는데 이후부터 그 절을 백양사로 부르게 되었다. 옆면에 비친 쌍계루의 모습은 백양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출퇴근길 도로변의 가로수가 하나둘씩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 캔스레 마음이 뒤숭숭해진다. 어찌면 가슴에 가을의 낭만을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목석처럼 감성이 매마르기 전에, 단풍이 생명을 다해 낙엽이 되어 나뒹굴기 전에 가을의 낭만을 찾아 내장산 국립공원을 걸어보길 바란다. ㉞

Tip 함께하면 즐거운 Leisure

- 내장야영장(063-538-7875~6)은 최대 50동가량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차량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팩킹을 즐기는 캠퍼에게 적합하다. 백양사 가인 야영장(061-392-7288)은 70동가량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캠핑장에서 출발해 백학봉을 거쳐 상왕봉까지 3시간이면 도착한다. 두 곳 모두 예약을 받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정읍시와 임실군이 면하고 있는 옥정호는 드라이브로 유명하다. 굽이치는 도로가 끊어질 듯 이어져 운전하는 맛이 있다. 아름다운 한국의 길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자그마한 주차공간이 있는 국사봉 전망대는 꼭 올라가 봐야 할 곳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봉어섬의 모습은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문의 정읍시청 관광마케팅담당 (063-539-5231)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편안하고 깊은 사랑을 쌓아온 일산지점 박정석 대리와 최남순 씨.
업무로 바쁜 남편이 서운할 법도 한데 항상 이해하고 격려해준 아내가 고마워 색다른 추억
만들기에 나섰다. 이들 부부 사이만큼이나 부드럽고 단단한 도자기 만들기, 지금 시작한다.

일산지점 박정석 대리 부부의 물레 도자기 체험

우리 사랑만큼 단단한 도자기 만들어볼게요!

우리 함께한 지 벌써 13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서니 예쁜 딸 서연이를 안고
있는 박정석 대리와 아내 최남순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커플로 맞춘
셔츠와 운동화에 풋풋한 눈빛 교환까지, 마치 캠퍼스 커플 같은 모습에
살짝 물어봤더니 역시나. 대학 1학년 때 같은 단과대 학생으로 만나 10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부부란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여전히 따끈한 부부의 애정이 취재진에게도
느껴졌다. 사랑이 깊어감에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된 결혼이지만
예정보다 조금 앞당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며 최남순 씨가 말을
이었다.

“연애시절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워낙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1~2년 정도
결혼을 서둘렀네요.(웃음)”

남들은 술 때문에 헤어지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술 덕분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꽂았다는 아내의 사랑은 보통이 아니었던 게 확실하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간 서로의 눈을 보고 마음을 맞춰 왔으니 여전히 행복한
지금의 모습이 어찌면 당연한 걸지도. 게다가 22개월 된 귀엽고 예쁜 딸
서연이의 웅얼이는 박정석 대리 부부에게 생기를 한껏 불어넣는 활력소다.
이토록 넘치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글
이진우
사진
류병문
촬영 협조
프렌즈 도예교육원(070-8879-3219)



예쁜 도자기, 사랑스런 우리 자기

물레 앞에 앉기 전, 공방 선생님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는 시간.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흙과 유약, 물레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듣는 부부의 표정이 제법 열정적이다. 궁금한 게 많은 듯 연신 질문을 던지는 최남순 씨의 포랑포랑한 목소리에 어느새 공방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호기심 가득한 아내를 바라보는 박정석 대리의 눈빛엔 따스함이 어려있다.

오늘 박정석 대리 부부가 만들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부부만의 화분. 손물레, 발물레, 옹기물레 등 다양한 물레 중 전기물레를 이용하기로 했다. 페달을 앞뒤로 밟아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며 작업하는 전기물레는 초보자가 다루기에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간단한 시범을 본 후 아내 최남순 씨가 먼저 물레 앞에 앉았다. 손에 물을 충분히 묻히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반죽의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누르니 눈 깜짝할 새 깊은 구멍이 생긴다. 스펀지를 이용해 그 공간을 넓히고 나니 어느새 단정한 모양의 화분이 완성됐다.

다음은 박정석 대리의 차례. 남자는 힘 조절을 못해서 반죽을 많이 뭉그러뜨린다는 선생님의 말에 긴장한 듯 손에 힘을 주지 못하던 것도 잠시, 안정된 자세로 물레를 돌려

*과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
박정석 대리 부부가 그간 사랑을
쌓아온 시간과 많이 닮았다.*

예쁜 화분을 똑딱 만들어낸다.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이 부부, 물레를 돌릴 때 집중하는 표정마저도 비슷하다. 반죽 성형을 마치고 화분에 그림을 그려 넣기 위해 마주앉았다. 다정했던 대화를 잠시 멈추고 각자의 작품 디자인에 열중한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그런데 완성한 화분을 보니 두 작품에 오밀조밀 하트와 부부의 애칭, 귀여운 딸 서연이의 이름이 똑같이 새겨져 있다. 가족의 행복함을 도자기에 영원히 담고 싶은 부부의 마음이 통했나 보다.


친구 같은 우리 부부, 언제나 행복해요!

“도자기 만들기는 처음 해보는데 새로운 경험이라 그런지 기분이 정말 좋네요. 기회가 된다면 취미 삼고 싶어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아직 손에 남았으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부부. 앞으로 3주 뒤면 유약을 발라 2~4번의 굽는 과정을 거친 단단한 화분이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된다. 도자기는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만 빠듯해도 구웠을 때 금이 가거나 터져버린단다. 과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 박정석 대리 부부가 그간 사랑을 쌓아온 시간과 많이 닮았다. “언제나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아내가 워낙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표정이나



행동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세세하게 알아주니 고마울 따름이죠.”

박정석 대리는 벌써 6년 차 벡센인이다. 벡센타이어 입사 후 한 번의 불평 없이 항상 재미있게 일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더 고맙다고 말하는 최남순 씨. 지금의 행복을 일궈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상대방 덕분이라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부부의 입가에 미소가 살며시 번진다.

엄마, 아빠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끝난 걸 알았는지 공방 한 켠 소파에 앉아 곱 인형과 놀고 있던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아빠 품에 안겼다. 오늘 세 식구의 이름을 아로새긴 화분에서 앞으로 더 큰 사랑과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날 것만 같다. 

맛과 멋에 취하는

팔도 명가 전통주

흥겹고 즐거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야 매한가지겠지만 대량으로
주조되는 술맛이 어디 오랜 시간을 거쳐 내려온
전통주만 할까. 맛과 멋이 있는 팔도의 명주를
찾아 나섰다.

불로장생의 상징

청양 둔송 '구기주'

청양은 구기주가 특산품이다. 애주가들은 구기주를 '100년을 살아도 늙지 않는 생명의 술'이라고 말한다. 특유의 향과 감칠맛, 그리고 뛰어난 강장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애주가 아닌 이상 구기주의 첫맛은 조금 부담스럽다. 다른 풍미 좋은 전통주들처럼 혀에 착착 감기는 맛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잔째 들어가고 석 잔째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순간부터 입안에서는 은은한 향이 달짝지근하게 맴돌기 시작한다. 처음엔 투박하고 굵퍼 보여 답답하지만 두고 보면 이내 정감 가고 믿음이 가는 충청도 사람의 기지와 같다고 하면 어울릴까? 술맛을 좀 아는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며 '이 술은 마실수록 깊은 맛이 나는 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술의 본류인 청양지역 하동 정씨 가문에서는 "구기주를 지고는 못 다녀도 넣고는 다녀야 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다.

다음날 뒤탈 없는

강원 홍천 '옥선주'

40도의 만만치 않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술이기에 입에 한 잔을 털어 넣자마자 목구멍에서 불이 난다. 식도를 타고 불덩이가 넘어가는 듯하다. 위장에 술이 도착한 지 10여 초, 이내 정신이 알팔팔해진다. 하지만 그 뜨거운 첫맛에 비해 속에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 이 깔끔함이 바로 옥선주가 가진 매력이다. 중국의 고량주나 서양의 양주도 비할 바가 아니다. 예로부터 안동소주, 문배주와 함께 3대 명주로 이름을 날리던 옥선주는 강원도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민속주다. 옥수수를



◆ 청양 둔송 구기주



◆ 강원 홍천 옥선주



◆ 경기 남양주 계명주

주원료로 한 곡주이기는 하나 결쫘한 막걸리 맛을 상상하면 안 된다. 맑고 청명한 맛은 꼭 양주를 마시는 듯하다.

옥선주는 옥수수와 쌀을 3:1의 비율로 섞어 밀술을 만들고 옥수수 엿물과 갈근, 당귀를 넣어 숙성시킨다. 이 숙성된 밀술을 증류시켜 그 결정체를 받아내기 때문에 빛깔이 맑은 것이다. 특히 강원도 130m의 암반수를 사용하기에 그 맑음은 더하다. 증류수의 특징이라면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옥선주 또한 오래 묵힐수록 맛이 깊고 진해진다. 증류한 곡주이기에 마실 때 목넘김이 깔끔하고 다음날 술이 깼 때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숙취가 없다. 알코올 40도의 만만치 않은 술이기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취해버리지만 그에 만만치 않게 술이 빨리, 깔끔하게 깨는 것이 옥선주의 매력이다.

오늘 담가 내일 아침에 먹는 고구려 술

경기 남양주 '계명주'

술은 발효되어야 제맛이지만 저녁에 술을 빚어 새벽에 닭이 울면 마실 수 있다고 해 이름 붙여진 술이 있다. 바로 고구려 술인 '계명주'가 그것이다. 그래서 계명주를 '숙성주', '삼일주'라고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보름 이상의 정성스러운 제조과정을 거쳐야만 참맛을 볼 수 있다. 술을 빨리 익게 하는 주인공은 엿기름이다. 옥수수와 수수에 엿기름을 넣어 죽을 쑤고, 여기에 누룩과 술잎을 넣는다. 알코올 도수는 11도로 약한 편이다. 게다가 '엿탁주'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을 만큼 달짝지근한 맛 덕분에 여성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계명주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남양주의 축령산 자락에 위치한 양조장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아직도 맛보기가 어려운 귀한 술이다. 곡주 특유의 신맛에 깊은 술향이 은은하게 입 안에 뱀다. 그래서 계명주와 어울리는 음식은 육류다.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오랫동안 감치는 새콤달콤한 맛이 입 안을 개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전통주의 만형

경북 안동 ‘안동소주’

안동소주는 독하다. 흔히 중국음식점에서 맛볼 수 있는 ‘고량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45도의 알코올 도수를 자랑한다. 하지만 독한만큼 맑고 깨끗하다. 우리 전통주의 ‘만형’ 격으로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량주는 술이 확 꺾 정도로 강한 맛을 자랑하지만, 안동소주는 그렇지 않다. 목구멍과 위장에서 불이 나는 화끈함은 비슷하지만 처음과 끝에 달콤한 향을 살짝 내며 은은함을 남기는 것이 안동소주만의 매력이다.

안동소주는 한일합방 이후 80여 년간 맥이 끊겼다가 안동 출신의 조옥화 씨가 복원하였다. 안동소주를 만드는 재료 또한 쌀이다. 멥쌀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다. 그런 후 술을 체에 걸러 술에 넣고 소줏고리에 엮은 다음 불을 지피 열을 가하면 쪼대에서 소주 방울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바로 안동소주다. 안동소주가 독하면서도 순수한 깨끗함을 지니는 것은 안동 지방의 깨끗한 물과 질 좋은 쌀 덕분이다. 때문에 안동소주는 뒤끝이 없다. 술 마신



다음 날이 가쁜한 것은 물론이다. 다만 도수가 높기 때문에 안주를 잘 차려서 함께 먹는 게 좋다. 안동소주에 간고등어구이 한 마리면 진수성찬의 임금님 술상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일명 앓은뱅이술

충남 서천 ‘한산 소곡주’

왜 하필이면 ‘앓은뱅이술’일까 싶다. 하지만 한산 소곡주 한 잔을 마셔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향기로운 누룩 향에 취해 술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으면 달짝지근한 술맛이 처녀 입술을 훔친 것처럼 달콤하다.

그 옛날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이 한산에 들렀다가 달콤한 소곡주 맛에 반해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취해버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과거 시험 날짜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앓은뱅이술’ 이란다. 이런 달콤한 소곡주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물과 누룩, 그리고 술 익는 온도다. 소곡주는 찹쌀과 누룩, 메주콩과 생강, 그리고 향을 내기 위한 약간의 국화잎과 부정을 타지 말라는 의미로 함께 넣는 홍고추 서너 개가 재료의 전부다.

망 속 향아리에서 100일 동안 묵히는 것도 술맛의 비밀. 소곡주가 백일주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일주는 약주로는 가장 오래 발효시킨 술이다. 발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술 빛기가 어렵고 술이 쉬기 쉽다. 반면 백일주는 오래 보관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맛도 깊고 은근하다. 서천 사람들은 소곡주 한잔에 미나리파전을 곁들인다. 단맛이 강한 소곡주는 파전 외에 육류와도 잘 어울린다. ㉞

그 밖의 전통주

이강주 조선 중엽부터 전라도와 황해도



이강주

에서 제조되었던 5대 명주의 하나. 술에 배와 생강을 넣었다고 해서 이강주다. 전통 소주 특유의 향에 배에서 우리나라의 청량감과 생강의 매콤함, 계피의 강한 향이 잘 어우러진다. 토종 누룩으로 만든 약주에 배, 생강, 울금, 계피, 꿀을 넣어 3개월 이상

숙성 시켜 만 든다.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도수는 25도.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 법주와 함께 ‘국주’(國酒)로 불린다.

조, 수수, 누룩 등을 이용해 만든 증류주로 술이 익으면 배꽃

향기가 난다고 문배주로 불린다. 40도가 넘는 술이지만 마실 때

목이나 혀에 부담이 없이 향긋한 느낌이 난다.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 **두견주**

가장 널리 알려진 진달래술.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그의

딸이 100일 기도 끝에 진달래와 찹쌀로 두견주를 빚는 비법을 터득, 이 술로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충남 당진 지방의 독특한 샘물을 사용한 알코올 도수

19도의 가향주로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야산에 활짝 핀 진달래를 채취해 꽃술을

떼고 말려서 사용한다. **진양주** 장흥 임씨 가문의 비주로, 200여 년의

내력을 지닌다. 임금이 마신 술이라 하여 ‘어주’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엷은

주황색의 밝은 빛깔을 자랑하는데 술맛이 달짝지근하고 부드럽다. **교동법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이름난 경주 최부잣집에서 350년간 전해오는 가양주이다. 당시 궁중에서 음식을 관장하던

최국선이 고향 경주에 내려와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수는 16도로 향이 독특하고 맛이

순하다. **중원 청명주** 한양으로 가던 경상도 선비들이 중원에 이르러 청명주를

마시고 가면, 문경새재 산마루에 이르러야 술이 깼다고 할 정도로

오래도록 그 진미를 즐길 수 있는 술. 숙성된 청명주는 알코올

도수 16도로 매우 끈적거릴 정도의 진한 맛과 약간의 시원한

맛이 있으며 오랫동안 숙성시켰기 때문에 마시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문배주



두견주





플루트 연주회에 초대합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열렸다.
신수정 대리의 플루트 연주회!

객석의 불이 꺼지고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되더니 플루트를 손에 꼭 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 준비 완료!
오늘 신수정 대리가 선보일 곡은 지난봄에 목표로
정해놓았던 '미뉴에트'와 그 외 연습곡들이다.

영롱하고 애절하게 공명하는 플루트 선율이 객석 가득 울려 퍼진다.
큰 기대 없이 연주회를 찾은 지인들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다.
첫 곡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향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사실 장소 선정에서 일정, 연습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바쁜 업무 탓에 연주회를 딱 2주 남겨둔 상황에서
하루 1~2시간씩 맹연습에 돌입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고.
그래도 숨 쉬는 타이밍을 몰라 연주 내내 헉헉거리던 시기도,
어려운 운지법 때문에 시달리던 손목 통증도 모두 잘 지나왔다.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만하면 어디 가서 플루트 부는 여자라고 명함 좀 내밀어도 되지 않을까?
프로젝트 N 덕분에 플루트를 배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한 신수정 대리.
딱딱한 일상을 플루트 연주하는 재미로 채워가고 있다는 그녀는
좀 더 좋은 플루트를 마련해 클래식뿐만 아니라 실용음악에도 도전할 계획이란다.
플루트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고,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열정을 쏟아부은
사우들의 마지막 이야기. 프로젝트 N은 이번 호에서 끝나지만,
참여자들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플루트
바뀌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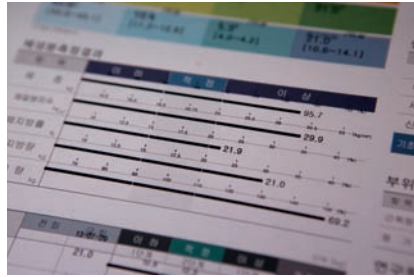


before

오늘 제 연주회
어땠나요?



after



경축!
13kg 감량

날쌔돌이라고 불러다오

두근 반 세근 반~

체지방 측정계에 올라선 노정섭 소장.

체성분 분석 결과, 노 소장의 몸무게는 놀랍게도 95kg이었다.

5개월 만에 무려 13kg이나 감량하다니!

게다가 근육량은 체중의 70%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kg은 거뜰히 넘었던 그였는데

오늘 보니 날쌔돌이가 따로 없다. 날렵해진 턱선과 탄력적인 바디라인에

“노 소장님 맞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호랑이 배드민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심 없이 달려왔던 지난 5개월.

이어지는 강행군에 다리가 후들후들, 관절이 시큰시큰했지만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다고.

‘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헉헉 소리를 내던 그는

살이 빠진다면야 무엇이든 하겠다는 열정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했고,

그간 흘린 땀방울 만큼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았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과정은 힘들었지만 노 소장에게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선물해준 배드민턴은 이제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목표 몸무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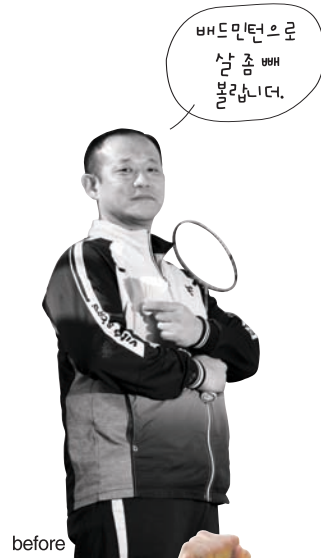
달성하니 자신감이 두 배로 붙었다. 이대로만 나간다면 꿈의 몸무게인

92kg는 때 놓은 당상이다. 이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변할 것이다. ‘한다면 한다’는 그의 굳은 결심을 들으니

프로젝트 N01 마지막 회라는 게 아쉽지만 하다. 10



배드민턴으로
살 좀 빼
볼랐습니다.



몸짱이 따로
없잖아?



똑똑하게 써야 돈을 아낀다

소비 습관에 맞는 신용카드 찾기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카드 구조 조정' 열풍이 불고 있다. 카드사들이 '긴축 모드'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고객에게 주었던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줄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관련 혜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지금까지 카드를 여러 장 돌려쓰면서 알뜰한 혜택을 챙겨왔던 소비자도 카드 재테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여러 장은 무용지물, 한 장으로 몰아라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을수록 '남는 장사'였다. 카드사들이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하다 보니 부가서비스가 푸짐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용 결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외국과는 판판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여러 장 카드를 보유해도 쓸모없는 상황이 됐다.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갑자기 부가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이용 조건을 엄격히 한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드 관련 소득공제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는 게 좋다. 작년 연말정산 공제율이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30%이었는데, 올해 신용카드는 15%로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는 그대로 3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쓸모 있는 똑똑한 카드 한 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진다.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물가가 올라 카드사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월 사용실적을 상향 조정 중이며 현재는 전월 실적이 30만 원 정도는 돼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 또한 "부가 서비스와 할인 혜택이 사라지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소비자는 필요한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소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게 맞는 똑똑한 신용카드

1 항공마일리지 모아 해외여행 가려는 김 부장
외환카드의 '크로스마일카드'는 결제 금액 1,500원당 1.8크로스마일을 적립해준다. 크로스마일은 일정한 비율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델타·타이항공·캐세이퍼시픽 등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로도 바꿔 쓸 수 있다. 1크로스마일은 스카이패스(대한항공) 1마일, 아시아나클럽(아시아나항공) 1.2마일과 같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항공사 마일리지로 매달 1,200~1,400마일씩 적립되는 셈이다. 또 전월 사용 액수가 50만 원 이상이면 인천공항 워커히호텔 내 식사권과 스타벅스 브런치세트, CGV 콤보세트 등을 매달 한 차례 무료로 제공한다.

2 주말마다 영화관 찾는 노총각 이 과장
롯데카드의 '뉴롯데시네마 포인트플러스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5,000원을, 40만 원 이상이면 9,000원을 롯데시네마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주말 영화 관람료가 9,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삼성카드4)나 하나SK카드(클럽SK카드)는 다양한 영화관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500~3,000원을 할인해준다. 카드사가 무제한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별·연도별 한도도 염두에 뒀야 한다.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인 혜택을 준다.

3 회사일 바빠 꼼꼼히 부가혜택 못 챙기는 박 상무
기존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혜택을 받는다. 또 포인트를 쌓더라도 일정액을 넘어야 현금처럼 쓸 수 있거나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현대카드의 '제로(zero)카드'는 이런 상식을 깨고, 모든 가맹점에서 조건 없이 할인해준다.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결제할 때마다 전 가맹점에서 0.7%, 편의점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가맹점에서는 1.2%까지 할인해준다. 무조건 할인해주니까 포인트를 쌓을 필요도,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4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는 두박이 신입사원
롯데카드의 '드라이빙패스카드', 'DC스마트카드' 'DC슈프림카드'는 모두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택시요금까지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해 10%를 할인해준다. '드라이빙패스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의 5%가 월 한도이고, 나머지 두 카드는 한도가 2만 원이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도 대중교통비를 월 1만2,000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할인해준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굿데이카드'는 월 5,000원 한도에서 10% 할인(전월 신용카드실적 30만 원 이상)을, 신한카드의 '터치앤바이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7%(월 1만 원 한도)를 깎아준다. ^①



생산2팀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오늘은 내가 요리사!



넥센타이어 생산2팀의 천사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밥심을 채워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만큼은 근무복보다 앞치마가 훨씬 잘 어울렸던 장정식 팀장, 김홍모·윤원국·정복섭 파트장, 김현희·이미정 사위! 요리뿐 아니라 뜨끈한 온정까지 나누었던 봉사 현장을 여기에 담았다.

반가워~

넥센타이어 언니, 오빠란다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 주말 오전임에도 아이들이 북적인다.

이곳은 방과 후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6세의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시설이다.

“안녕 애들아! 오늘 같이 요리할 넥센타이어 언니, 오빠란다.”

“에이~ 오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음식 만들어요?”

“샌드위치랑 잡채 만들 거야.”

“우와~ 맛있겠다!”

구김살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우들의 얼굴에 껌연쩍은 미소가 비친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진작 찾아오지 못했을까 싶어서.



구김살이라곤 전혀 없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니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싶어
아쉽기만 하다.

앞치마 두르고,
뽀뽀 손 씻으면 준비 끝!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선 사우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요리사다.
조리 전 손 씻기는 필수라며 아이들과
사이좋게 손을 비빈다.
이제 재료를 다듬을 차례.
파프리카, 시금치, 양상추, 당근 등을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다듬고,
쓰기 좋게 담아본다. 즉석식품이 아닌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로 함께 요리하고
맛있게 먹을 생각에 시작 전부터
모두가 기대 만발!
자, 이제 준비도 다 되었으니
실력발휘 좀 해볼까?



사랑 한 장에
정성 두 장 깔고~

행여나 고사리 같은 손 다칠까 사우들이 더 전전긍긍이다.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야무지게 채소를 썰어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의젓한 모습도 잠깐, 아이는 아이인가 보다.
몰래 식빵 자투리를 집어 입에 쑥 넣는 얼굴이 개구지다.
“우리 빵 하나 먹고 시작할까?” “진짜요? 아저씨가 먹어도 된대!”
한창 클 나이 댄 늘 배가 고픈 법이라며
오히려 사우들이 더 난리다.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던 우리 아이들,
살가운 말 한마디에 연신 싱글벙글한 걸 보니 괜스레 울컥한다.
“난 치즈 2개 넣을 거야.”
“야채도 맛있는데. 파프리카를 좀 더 넣는 건 어때?”
서로 치즈를 먹여주고, 케첩을 묻히며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샌드위치 소를 넣고 빵을 꾹꾹 누르는 사우들의 손끝에는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애들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잡채에 센터에서 준비한
여름철 별미 팔빙수, 수박까지 곁들이니
잔칫상이 따로 없다.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난 2개 먹을래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 실감이 난다.
가리는 음식 하나 없이 너무나 맛있게 먹는
아이들 모습에 방금 전까지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땀도 금세 식는 것 같다.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덧 헤어질 시간,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작별인사를 전했다.
우연한 기회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언제나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 아이들과 앞으로도
꾸준히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더불어 아무쪼록 아이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㉞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 돕는 법



양산 중앙비전지역아동센터는 복권기금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행복공감 별빛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물론 재능기부도 가능하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주소 경남 양산시 북부동 361-2
문의 055-3770-5351



로렐라이 전설 속, 라인 강변을

오랜 세월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라인 강.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라인 강변을 달렸다.
어디선가 로렐라이 전설에 등장하는 소녀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달리다 _____

라인 강은 길이 약 1,320km, 면적은 약 16만km²로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강이다. 이 강은 알프스 산지
에서 발원하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거쳐 북해로 흘러가는데, 그중에서도
독일을 통과하는 부분이 가장 길어 독일의 상징 중
하나로 손꼽힌다. 독일에서도 특히 유명한 구간이
마인츠와 코블렌츠 사이다. 풍경이 아름다워 독일의
 드라이브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자동차로 유럽을 여행하던 중, 마인츠에서 코블렌츠,
더 나아가 쾰른 방면으로 라인 강변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기로 했다.

뤼데스하임은 라인 강 유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차며, 매력적인 마을이다. 좁은 거리를 따라 예쁜
집들이 딱딱딱 붙어있고, 작지만 입체적인 간판과
녹색의 담쟁이덩굴, 그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누가 독일 아니랄까봐 비어가든과 와인바가
줄줄이 늘어서 있다. 길을 걷기만 해도 달콤한 술
향기가 풍길 것 같은 기분 아닐까?

마을 뒤편의 언덕 위에 오르면 비스듬한 경사면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배들이 점점이 떠 있는 라인 강, 그리고 좌우로 짝 펼쳐진 포도밭의 초록 물결. 가히 라인 강변의 진주라고 칭송할 만하다.

골짜기 사이 구불구불 이어진 라인 강과 그 주변은 오랜 세월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녹음이 짙은 숲 사이로는 빼꼼히 고개를 내민 고성들이 나타나고, 작은 마을 사이로는 뾰족한 교회 첨탑이 홀로 솟아 있다. 게다가 독일 최고의 화이트와인 생산지답게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은 어찌나 싱그러운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강변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디선가 로렐라이 전설에 등장하는 소녀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라인 강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장크트 고아르스하우젠. 이 마을에는 황금빛 머리카락에 꼬꼬리처럼 고운 목소리를 지닌 로렐라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이 소녀는 한 소년을 좋아했는데, 그 소년이 전쟁터로 떠나자 매일 같이 언덕 위에 올라 라인 강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탄 배가 드디어 라인 강을 따라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다. 소녀는 뿔 듯이 기뻐다. 하지만 갑자기 소용돌이친 강물에 배가 그만 침몰당하고 말았다. 차마 슬픔을 견디지 못한 소녀는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졌고,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Profile

관남연은 유럽 자동차 여행 가이드북 <자동차로 유럽 파헤치기>의 저자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유럽을 자동차로 여행해 왔다. 그간의 여행기는 블로그 '소금별's 유럽자동차여행' (blog.naver.com/lylyly7)을 통해 꾸준히 연재 중이다.



골짜기 사이 구불구불 이어진 라인 강과 그 주변은 오랜 세월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녀가 죽은 이후, 그녀가 죽은 장소에서는 수많은 배들이 암초에 걸리거나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뱃사공들의 말에 의하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일령이는 황금빛 머리카락과 고운 목소리는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거기에 홀려 정신을 놓치는 사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슬프지만 신비로운 이야기는 몇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설로 내려오며 수많은 시와 노래로 만들어졌다. 하이네의 시에 F. 질허가 곡을 붙여 만든 <로렐라이>란 민요는 우리나라 음악교과서에도 실렸을 만큼 많이 알려진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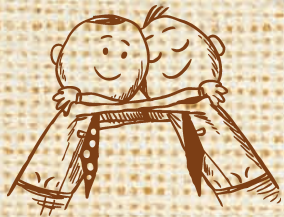
실제로 로렐라이 언덕 아래의 라인 강 구간은 강폭이 좁고 커브가 심한데다 물살이 거세어 배를 타고 지나가기에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다 옛말인지, 지금은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유유자적하게 강 위를 지나가고 있다.

차를 타고 장크트 고아르스하우젠에 있는 로렐라이 언덕에 올라가 보았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소녀의 석상이 이곳이 전설 속 무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아래 펼쳐지는 라인 강의 풍경은 비극적인 전설을 떠올리기엔 너무나 평화로웠다.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강줄기 옆으로 지금껏 내가 달려온 길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어져 있다.

라인 강 드라이브는 독일 중서부의 도시 쾰른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쾰른은 라인 강변의 도시로 중세 시대에 지어진 독일 최대 규모의 대성당으로 유명하다. 웅장한 고딕식 성당 탑에 오르면 지금까지 본 것과는 또 다른 라인 강의 풍광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자연과 인간, 도시와 시골, 전설과 역사, 과거와 현재. 나는 자연이 빚어내고 인간의 이야기가 담긴 라인 강을 따라 드라이브 여행을 마쳤다. 골목골목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한 뤼데스하임, 로렐라이 전설의 무대가 된 장크트 고아르스하우젠, 변화한 경제도시 쾰른, 그리고 그 사이 지나친 무수히 아름다운 풍경들.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며 드라이브를 즐겼던 그때의 상쾌한 강바람이 문득 그리워진다.🍷

넥센의 이모저모

우리는
넥센 패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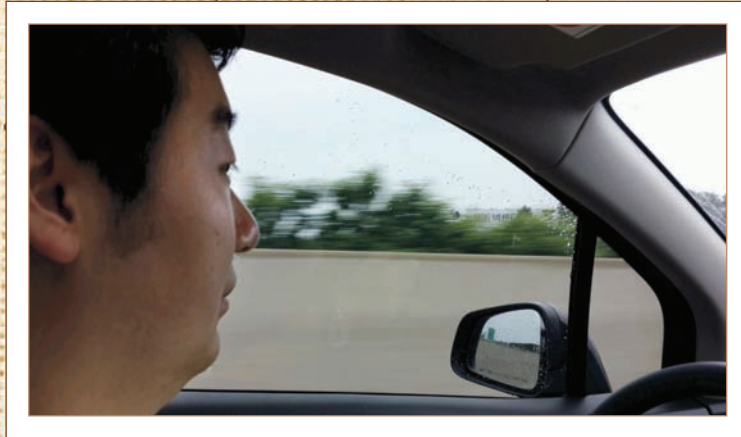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들.
어느새가 우리는 일적인 관계를 넘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보지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스러운 이 엉덩이의 주인공은 누구?
RE개발1팀 류친성 연구원입니다. 맥모닝 먹고
맥모닝 된 엉덩이' 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햄버거 같지 않나요?
OE개발2팀 정수용 사우



봐도 봐도 젠틀맨!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많이
바랬지만 우리도 한뼘
젠틀맨이었답니다. 10년 전,
동료와 함께 속초에 영업 나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동료가 바로
현재 김정수 춘천분소장입니다.
원주지점 김정길 지점장



넥센타이어의 베스트드라이버

제 옆에서 제법 푼 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내수영업관리팀 최원석 사우입니다.
저 멀리 창녕공장을 배경으로 고속도로를 뱅뱅 달리다 한 장 찍어보았어요.
내수영업관리팀 변인규 사우

테드핑 갓 빌려 쓰고 찰칵!

지난 6월 동기들과 넥센히어로즈 vs
롯데지이언츠의 경기를 보러 사적구장을
방문했습니다. 동기인 연구개발본부
특성연구팀 이영대 연구원이 마침
테드핑을 만나 갓을 빌려 쓰고 사진을
찍어줬네요. 저와 같이 살면서 많이
챙겨주고 매일 아침 수영을 한 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바른생활
사나이랍니다.
정보전략팀 배성환 사우



미녀 4총사, 올여름 휴가는 배내골에서

헤민 언니, 진희 언니, 유진이 그리고 저 이렇게 4총사가 지난 6월 말에
배내골 펜션에서 이쁜 휴가를 즐겼답니다. 입사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첫 만남부터
십년지기 친구의 느낌을 물씬 풍기며 급속도로 친해진 우리.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 모두 사랑해!
생산기술팀 최영현 사우

LOVE

우산 속에서 싹튼 남자 셋의 사··,
아니 우정

부슬부슬 비 내리던 어느 날, 저희 팀 박경태 대리,
이광우·최동훈 사우가 우산이 없다가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남은 우산이 달랑
하나라 세 사우가 오뎅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간장한 남자 셋이 우산 하나에 의지해 함께
걸어가니 어쩌나 웃기던지, 사진 속 다정한
모습처럼 실제로도 사이가 참 좋은 우리 팀원들.
사··사·· 아니 좋아합니다.
품질보증팀 서명곡 사우



팀장님 팀장님 우리 팀장님~

작년 4월, 등산을 좋아하시는
팀장님과 함께 아홉산에 올랐을
때입니다. 팀장님! 날 좋을 때 등산
한 번 더 가요, ^^*
안전환경팀 김문채 사우

재료파트의 두 히어로, 아빠와 개그맨

재료파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물 두 분입니다. 김경남
직장님은 언제나 팀원들에게 아버지처럼 힘이 되어주는 분이세요.
형일 씨는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사무실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늘 콧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지요. 이 두 분의
히어로가 있어 오늘도 재료파트는 북다북다 행복합니다.
재료파트 김소영 사우



빨록 나온 배는 직장님의 매력 포인트

정련파트의 마스크트 박한기 직장님입니다.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곳은일을 모두 도맡아 하시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멋진 직장님.
빨록 나온 배는 매력 포인트, 뺏침 진 팔자걸음은 애교 포인트랍니다.
정련파트 문희정 사우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해온 컴파운드개발2팀의
박남 과장과 서진경 사우가 특별한 밤 나들이에 나섰다.
일상의 소란은 잠시 잊고, 별을 헤아리며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보낸 그날 밤 이야기.

컴파운드개발2팀
박남 과장, 서진경 사우의 김해천문대 나들이

그 선배 그 후배의 별 헤는 밤



“과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이 내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어? 감동 받았어, 정말.”
오늘 나들이 코스인 김해천문대에 오르기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다. 상사의 생일에 맞추어 취재진에게 케이크를
미리 부탁하는 등 치밀함과 당돌함의 끝을 보여준 그녀, 컴파운드개발2팀
서진경 사우이다. 한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와의 나들이에 기꺼이
응해준 ‘쿨’ 한 상사는 같은 팀 박남 과장.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두 사우를 보면서 취재진은 남모를 걱정애에 잠겼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흐리면 어떡하지, 꼭 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베테랑과 신참, 우리 같이 걸을까

박남 과장과 서진경 사우가 속한 컴파운드개발2팀의 일상은 늘 분주하다.
타이어 트레드 이외 부분의 소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느라 실험실과 현장,
사무실 할 것 없이 여러 곳을 오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탓이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도 서진경 사우는
신참으로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팀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올해 초 신입사원들이 인사차 우르르 왔더라고요. 그중
각뚱이 배꼽인사를 하는 여사우가 참 마음에 들었죠. 그
사람이 바로 진경 씨였어요. 이렇게 우리 팀이 될 줄이야.
진경 씨의 밝은 인사성 덕분에 저희 팀 분위기까지
좋아졌네요.”

본격적으로 천문대를 향하는 길, 아직 더운 날씨에도
어쩔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사이좋게 걸어갈까.
그런 정다운 모습을 보노라니, 우애 좋은 남매가
떠오른다. 박남 과장은 컴파운드개발2팀의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파트장, 서진경 사우는 올해 입사한
신입이니 남매로 치자면 큰 오빠와 막냇동생쯤 될까.
실제로도 동료들 사이에서 돈독한 선·후배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들의 훈훈한 일화를 전해들은 바가 있어 살짝
운을 떴자, 박남 과장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낸다.
“이 친구가 입사하고서 참 열심히 일했거든요. 신입사원
OJT 발표회 때 그간의 성과를 100%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한 것뿐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별 거 아니긴요!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제일 뜨거운 반응을 얻었잖아요. 주변에서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컴파운드개발2팀 안에서 소통으로 성장하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김해천문대에 다다랐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천문대
전시실, 학창시절에 유독 지구과학을 좋아했다는 서진경
사우는 이곳이 마냥 신기한 모양이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진 찍느라 바쁜 와중에도 선배를 챙기는 모습이 참
살갑게 느껴진다. 일할 때는 카리스마 넘친다는 박남
과장도 13살이나 어린 후배를 보는 눈길만큼은 따뜻하다.
특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후배가 기특하다며
칭찬을 쏟아낼 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진경 씨는 매사 열정적이에요. 젊은 사람이 저녁엔
데이트도 하고 놀고 싶을 텐데, 일 욕심이 있는지 집에만
안 가네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면
선배들 입장에선 부끄럽죠. 괜히 초심을 잃은 것
같고...(웃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제일 어려웠던 게
보고서 작성인데, 학교에서 썼던 용어와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때론
엄하게, 때론 자상하게 가르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토록 완벽한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짙-하고 세팅된 것은 아닐 터. 이는 2~3명의 팀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소 하루 한 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팀의 시스템 영향이 컸다. 월요일 오전에는
업무에 관한 칭찬뿐만 아니라 고충도 터놓을 수 있는
‘힐링타임’을 가진다는 컴파운드개발2팀,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멘토와 멘티랄까.



반짝반짝 빛나는 서로의 별이 되어

전시실 관람에 이어 가상 별자리 체험이 끝났다.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천체 관측 프로그램 차례. 혹시 날이 흐려
별을 보지 못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은 기우였을까. 다행히
‘태양계의 보석’이라 불리는 별, 토성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고리로 몸을 휘감은 채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토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 두 사우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전에 몇 번 천문대에 왔었지만 별을 관측한 건
처음이에요. 과장님이랑 와서 운이 좋았나 봐요.”

“사보 출연 제안을 받고서 이 친구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떠올려봤는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최근엔
바빠져서 얼굴 볼 날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별도 함께 보고, 그간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눌수 있어서 아주 뜻 깊었어요.”

소통을 중요시하는 선배와 긍정적인 태도로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후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멘토와 멘티의 모습이 아닐까.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의
가슴 속에 반짝이는 별로 남아주었으면, 그리하여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㉞

타이어 똑똑하게 사용하기

타이어에 숨겨진 효율 향상의 비결



자동차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기술적 향상과 에코드라이빙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전자인 기술적 효율 향상의 핵심은 연소를 증대, 동력 전달 시간 단축, 중량 감소, 저항 축소이다. 그중 타이어에 적용 가능한 것은 저항 축소를, 지면에 맞닿는 특성에 따라 마찰이 적고 회전할 때 발생하는 구름 저항이 최소화될수록 기름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타이어에도 효율이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자동차 연료 소비의 20~30%를 차지하고, CO₂ 배출량의 24%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정작 효율 저하 원인을 타이어에서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카이스트 안병훈 교수의 '타이어 에너지효율등급제의 경제적·환경적 효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친환경 의식 수준은 높지만 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이어의 효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회전저항 인식도가 매우 떨어진다. 타이어가 회전할 때 반대로 작용하는 힘(저항)이 적을수록 연료 효율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셈이다. 통상 타이어는 회전저항이 10% 감소할 때 약 1.74%의 연료 효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도 올해부터 '타이어효율 등급제'가 도입됐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의 기초가 되는 회전저항이나 젖은 노면 제동력 등 타이어와 연비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요즘 많은 타이어 회사들이 '친환경 타이어'를 속속 선보이는 중이다. 다양한 친환경 타이어의 공통적인 특성은 노면과의 마찰이 적다는 점인데, 이 경우

친환경 타이어 사용과 공기압 관리는
연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제동능력도 덩달아 떨어질 수 있다. 저항 감소는 효율 상승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제동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효율 등급을 산정할 때 젖은 노면 위에서 제동력 시험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찰력을 줄이되 제동 성능을 유지했다면 좋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8개의 레이어(layer)로 구성되는데 특히 연료소비량, 접지력, 회전소음의 성능은 접지면에 사용되는 고무의 종류와 배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실리카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것도 결국 마찰저항 감소와 직결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 타이어 4개의 가격은 일반 타이어 대비 평균 32만 원 정도가 비싸지만 100km당 0.5ℓ의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하면 16만 8,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2년이면 타이어 비용 차액과 비슷한 값이다. 친환경 타이어를 장착할 때 초기 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료소비를 5~7%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 대비 비용 상쇄가 충분하다.

친환경 타이어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타이어 구조 설계기술과 신소재를 사용해 연비는 물론 성능까지 향상시킨 제품인데, 실제 넥센타이어의 엔블루에코는 시험 결과 일반 타이어 대비 5.4%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회전저항을 줄이기 위해 RFS(롤링 프리션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저항감소율이 30%에 달했다. 그럼에도 제동력은 잃지 않았고, 내마모성 듀얼폴리머가 사용돼 트레드 수명도 늘었다.

또 하나의 비밀, 공기압

고무에 실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를 섞고, 트레드 패턴의 변화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기술적 향상이라면 에코 드라이빙은 운전자가 직접 비용을 절감하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중에서도 타이어로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공기압이다.

교통안전공단이 2009년 1,783대를 대상으로 타이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가 조사 대상의 10%를 차지했다. 통상 타이어는 적정공기압에서 10%가 높거나 낮을 때 1%의 효율이 저하된다. 심지어 응답자의 절반은 공기압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기압 미관리는 효율 저하를 떠나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미안전관련규정에 따르면 타이어는 계절 간 온도 차이에 따라 내부 압력 변화가 발생한다. 외부 기온이 높으면 내부가 달궈져 공기압도 4psi(압력의 단위, 1평방 인치 당 중량)가량 상승한다.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일정량이 새어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공기압 관리는 효율 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2014년부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전차종 의무화를 선언했다. TPMS는 타이어 공기압 변화를 운전자에게 수시 제공하는 장치로,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다 보충됐을 때를 알려준다. 미국 내에서 완성차에 의무 적용한 결과 효율이 오르고 사고가 줄어드는 일거양득 효과가 입증돼 국내 도입이 결정되었다. 물론 아직은 신차 우선 적용이지만 제도 도입 2년 후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소비자가 TPMS를 별도 장착하는 방안도 확정돼 있다. 기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에도 TPMS를 적용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다.

타이어 공기압 외에 마모 상태 또한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한계선을 넘을 정도로 닳았을 경우 제동거리가 늘고, 엔진 동력을 온전히 노면에 전달하지 못해 추가 회전에 따른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흔히 자동차 역사 100년 동안 효율 면에서 가장 부진한 분야가 타이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기본 원료인 고무 소재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서다. 그래서 타이어를 통한 연비절감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실천하는 게 최선이다. 효율 높은 타이어에 에코 드라이빙 운전을 실행한다면 비용절감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①



넥세니의 대리점 방문기

타이어테크 가든파이버점

넥세니 캐릭터가 소개하는 타이어테크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 방문한 매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로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타이어테크 가든파이버점이다.

고객님! 오일을 교환하다가 타이어 안쪽에서 철심을 발견했어요.

네? 뭐라고요?
당장 내려갈게요!



와우! 그런데 이 친절한 직원분은 누구??



저는 가든파이버점의 반장 안병기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디젤 차량 정비의 일인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항상 넘치는 에너지로 저희 매장의 분위기메이커도 맡고 있어요. 참, 저희 매장의 점장님과 소장님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가든파이버점의 심윤규 점장입니다. 오랫동안 정비사로 일하신 만큼 어떤 것도 척척 수리해내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죠. 특히 차량 에어컨 펌프에 관해선 박사님이랍니다. 언제나 친절함 웃음으로 고객관리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분은 오창길 소장입니다. 자동차 수리의 베테랑이며, 특히 전기 배선 쪽에 대해선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실력자랍니다! 오늘 타이어 교체는 소장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어떤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아까 승차감을 중시한다고 하셨죠? 그럼 이 타이어를 추천해드립니다. 고객님께 가장 잘 맞는, 저렴하면서도 좋은 타이어를 추천해드려야죠. 자, 타이어를 갈아드릴게요~ 매장에서 기다리실 필요 없이 워층 쇼핑물에서 쇼핑하고 오시길어요?



오아. 전 타이어에 관해선 잘 모르는데. 그냥 비싼 걸로 해주세요! 비싼 게 좋은 거겠죠~!





우와, 정비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는군. 게다가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에 내 기분까지
좋아지는걸?



음~ 게다가 지하에 있어서
아늑하고 좋네. 태풍이 와도 걱정 없겠어!
어머, 심지어 넥센타이어 선정 우수대리점이잖아?
이런 매장이 또 어디 있겠어~
그럼 믿고 쇼핑다녀 올게요~



다 됐습니다. 고객님의!

앗, 벌써요?
역시 모두 타이어 전문가들이라
신속 정확함이 아주 최고구만.



저희 매장에서 관리하는
고객님의 차계부에 오늘 수리
내용 입력해드렸습니다.
고객님 자동차의 관리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음에
매장을 방문하셔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정비부터 고객관리까지
정말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가든파이버점의
단골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타이어테크 가든파이버점은
꼼꼼함과 신속함, 편리함과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매장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무엇보다!

내 가족의 차를 수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타이어테크 가든파이버점. 지하에 위치한 매장
위로는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이 있어 타이어 점검과
쇼핑·문화생활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베테랑들의 뛰어난
실력에 친절함까지 갖춘 타이어테크 가든파이버점,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10



2013 NEXENTIRE Big Challenge by Healing

Quantum Jump를 향해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다

넥센타이어의 전사혁신과정이 지난 6월 3일차/부장급 과정을 시작으로 총 31차수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혁신을 통해실적 상승을 이루는 'Quantum Jump*'를 기치로 한 이번 교육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넥센인이 가져야 하는 의식 혁신을 주제로 '성즉명(誠堦明, Big Bang, Healing)'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사혁신과정은 혁신을 통해 실적 상승을 이루는
'Quantum Jump'를 기치로 구성되었다.



왜 'Big Challenge'인가?

2013년 넥센타이어는 4,000만본 생산시대에서 영업지점 확대와 법인화, 글로벌 홍보-마케팅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시점을 맞이했다.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영업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롤메이커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맡은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誠堦明),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들며(Big Bang),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형성(Healing)해야 한다. 이는 타이어회사 1등을 노리는 넥센타이어의 크고 담대한 도전이다.

소통·협력을 내세운 임원교육

이번 전사교육은 커리큘럼에도 'Big Bang'의 의미를 살려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통상적으론 임원교육을 가장 먼저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차/부장 및 과장급 과정이 종료된 이후 임원과정이 진행되었다. 차/부장 및 과장급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의견을 임원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었다.

임원교육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W호텔에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31명이 참가했다. 아빈저코리아 대표 서상태 박사의 강의로 시작된 교육은 Quantum Jump를 위한 임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임원들은 주제별로 진행된 조별토의 및 발표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열띤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사 발전을 위한 임원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또한 소통을 위한 시간에는 임원들이 상사와 부하역할을 맡아 직접 시연함으로써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방식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2일차에는 당사 마케팅고문 서울대 김현철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기업혁신의 성공적 모델인 브리지스톤 타이어와 토요타의 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넥센타이어가 Quantum Jump하기 위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임원교육 마지막 날은 강병중 회장의 특강으로 마무리 되었다. 강 회장은 넥센타이어의 발전과정을 회고하며 “그 동안 동종 업계 타사들이 고속도로를 달은 것이라면 우리 넥센타이어는 타이어업계의 아우토반을 만들 수 있도록 Quantum Jump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이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 주지해야 한다며 우수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임원들에게는 직원 간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며 “넥센타이어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g Challenge by Healing 일정

넥센타이어는 지난 7월 16일부터 대리-사원급을 대상으로 총 21차수의 교육과정이 진행하고 있다. 양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Quantum Jump를 위해 대리-사원 직급이 가져야 할 의식 혁신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된다.

교육이 종료되는 10월 중순 경이면 모든 넥센인이 글로벌을 향한 담대한 도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2020년 10조 기업을 향한 넥센타이어의 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10

*Quantum Jump : 물리학 용어.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 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기업이 사업구조나 사업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과 쓰는 센타이

전국 벌분임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지난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의 개선 방안 및 실행 성과를 낸 품질 혁신 우수 사례를 경쟁하고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이번 대회는 전주에서 5일간 진행되었으며

벡센타이어는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TPM 활동으로 설비 종합효율 향상’이라는 주제와 ‘Mixer 3호기 적재장~~끝~~개선으로 비가동시간감소’라는 주제로 TPM 부문과 현장개선 부문에 가했다. TPM 부문의 가류 C1 분임조는 전원이 여하여 현재 6STEP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 가동률 3.48%, 성능 가동률 2.96%, 양품률 0.33%, 설비종합 효율 6.01% 등 다양하면서도 우수한 실적으로 무장해 대통령 금상을 수상했다. 또 현장개선 부문의 정련 표준작업 분임조는 Mixer 3호기 적재장~~끝~~ 개선을 통한 비가동시간 감소라는 주제를 선정해 현상 악부터 중점항목 선정, 원인 추구를 통한 문제 해결, 재발 방지적 현장개선 활동 등으로 적재이상은 762분, 고무말림 현상은



벡센타이어가 겹경 를 맞았다. 지난 8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이어진 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개 분임조가 나란히 과 동 을 수 했 때문. 이번 수 은 전 대회 3연속 제패로 벡센타이어 TPM의 저력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 다.

485분의 감소 효과를 거둬 대통령 동상을 수상했다.

공장혁신사무국 이승주 사무국장은 “금번 수상의 기쁨도 크지만 2011년 전국대회 출전 이후 꾸준히 기록이 향상되고 있어 더욱 기쁘다”며 이제 벡센타이어의 TPM 활동이 본격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경남 품질분임조 출전을 계기로 2011년에는 TPM 부문에서 가류 ‘힘모아 분임조’가 전국대회 대통령 은상을, 2012년에는 현장개선 부문에서 재료 ‘처음 분임조’가 대통령 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TPM 부문 가류 C1 분임조와 현장개선 부문 정련 표준작업 분임조 2개조가 출전하여 각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으니 그야말로 승승장구다. 품질은 생명과도 같다. 뛰어난 품질만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벡센타이어가 TPM을 시작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손실을 최소화하며, 지식경영 기반을 위해 전문 운전원을

육성하는 TPM이라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벡센타이어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TPM을 도입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11월이었다. 타 기업에 비해 다소 느린 출발이었지만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벡센타이어는 들소처럼 달려왔다. TPM 도입과 동시에 월 4일, 연 48일간의 설 을 진행하고, 분임조의 회합을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 다. 사내 제안 발표회는 물론, 분임조 경진대회도 진행해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노렸다. 그렇게 노사가 한마음으로 설비, 사람, 시스템의 체질개선을 추구하며 고군분투한 결과, 벡센타이어는 TPM 도입 7년, 대회 출전 4년 만에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거를 이룰 수 있었다. 벡센타이어는 매년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품질분임조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벡센타이어의 혁신은 아직 진행 중이다. ㉞



넥센타이어 축구단 2014년 FA컵 진출

넥센타이어 축구단이 2014년 FA컵 진출 티켓을 획득했다. 넥센타이어 축구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양일간 경남 통영시 신양스포츠파크 축구장에서 열린 제1회 고용노동부 장관기 전국 직장축구클럽 챔피언십 슈퍼리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와 경상남도(통영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 통영시, 경상남도(통영시)생활체육회의 후원으로 총 50여 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넥센타이어가 출전한 슈퍼리어 리그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과거 3년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의 입상클럽 및 본회 지명클럽들로 구성되었다. 넥센타이어 축구팀은 삼성전자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끝에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상으로는 MVP에 진용 선수, 베스트골상에 김경대 선수, 감독상에 이성민 감독이 선정되었다.

넥센타이어 김대건 코치는 “그간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적이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꼭 우승하겠다는 선수들의 의지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성민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내년 FA컵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독일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가

지난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Cars)’에 넥센타이어가 참가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완성차를 비롯해 관련 부품, 기계 장비 등을 전시하는 유럽 최대의 모터쇼이다. 지난 2011년 모터쇼에는 1,012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93만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약 1,000여 개의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쇼를 빛냈다.

넥센타이어는 공식 오프닝에 앞선 11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유럽 딜러 및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중대형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N’ FERA SU1, N’ FERA SU4,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N’ FERA RU1 등 5개의 신제품 출시 발표회를 진행했다. 총 24개 제품을 OE/Summer/Eco, NEW & Concept, WINTER & All Season의 3개 존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NEW & Concept존에서는 N’ FERA SU1 실란트 타이어로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엔터테인먼트형 공연은 물론, 넥센타이어 제품을 장착한 현대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 튜닝카와 독일 VLN 레이싱에 참가 중인 BMW Z4 차량을 전시해 역동적인 디스플레이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모터쇼가 넥센타이어의 품질과 기술력,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후에도 유럽지역 마케팅 강화에 박차를 가해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공장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넥센타이어가 지난 7월 10일 창녕공장에서 창녕군, 엔에스솔라, 에스에너지, 에어텍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75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된 이번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은 3MW(메가와트)로 국내 타이어업체로는 최초의 대규모다. 창녕 제1공장의 단일 지붕에서 일조량이 양호한 곳 37,000㎡에 설치하였으며, 이는 축구장 5개 크기와 맞먹는다. 또한 TPO(열가소성 폴리올레핀) 방수시트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써,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기획단계에서부터 4단계의 신설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따라서 공장이 증설됨에 따라 시설의 규모가 확대되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3-4라운드 개최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2013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3-4라운드가 각각 7월 14일, 8월 25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다.

3라운드는 '스피드레이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컨셉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풀장에서 물대포 놀이, 수박씨 멀리 뱃기, 네일아트 서비스, 레이싱 모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그리드 워크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었다.

총 5라운드로 치러지는 시즌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4라운드에서는 시리즈 포인트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더불어 야외풀장, 캐리커처 이벤트, 드라이빙 게임, 원샷카 무료 시식행사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파트너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류현진이 활약하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이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홈구장인 터너필드 스타디움과 코메리카 파크 내에 광고보도를 설치해 'NEXEN' 브랜드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넥센타이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월드시리즈 3회 우승, 내셔널리그 챔피언 17회 우승을 기록한 전통명문 구단이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역시 월드시리즈 4회 우승, 아메리칸리그 11회 우승을 기록한 팀으로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로 뽑힌 미겔 카브레라가 활약하고 있어 마케팅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N'FERA, 'THE PROUD-주목받는 신상품' 선정

넥센타이어 프리미엄 브랜드 N'FERA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3 THE PROUD'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4, SK텔레콤의 놀 등과 함께 주목받는 신상품에 선정되었다.

'THE PROUD-주목받는 신상품'은 출시 1년 이내의 이슈 상품을 선정하여 소비자 패널조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N'FERA는 신개념 소재 적용과 최적의 패턴 설계로 동급 타이어 중 가장 긴 수명과 부드러운 승차감, 정숙한 드라이빙, 효율적인 연비 성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와 2년 연장계약 체결

넥센히어로즈 역사가 계속된다. 넥센타이어가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와의 메인스폰서십을 2015년까지 2년 연장 계약했다. 이로써 2010년 시즌부터 시작된 '넥센히어로즈'의 역사는 6년간 그 명성을 이어가며, 국내 프로야구팀 가운데 메인스폰서십을 토대로 운영되는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이번 메인스폰서 계약연장은 지난 4년 동안 프로야구를 통해 '넥센타이어'가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익숙한 브랜드가 되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넥센히어로즈는 올해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내며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넥센타이어는 경기장 내에서 브랜드광고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관중들과 친숙한 만남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4년 연속 1위



넥센타이어가 지난 6월 27일 글로벌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일본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3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조사에서 타이어 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 글로벌 고객만족지수는 다국적 컨설팅 그룹인 일본능률협회컨설팅이 개발한 고객만족도 평가 시스템으로, 국가별로 측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08년 업계 최초로 명품보증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고객만족 캠페인을 전개하며 고객 불만 발생 시 찾아가는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서비스 후 해피콜을 통해 고객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등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UV용, 중대형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 출시와 동시에 국내 완성차 업체 타이어 공급량이 증가했으며, 내수시장 확대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N’ FERA SU4, 중국 〈기차족〉 ‘2013 Best safety’ 수상

넥센타이어의 2013년 신제품 N’ FERA SU4가 〈기차족〉 잡지가 주관하는 타이어 테스트 평가 대회에서 ‘2013년 도 안정성 타이어’로 선정되었다.

중국의 〈기차족〉은 미국의 유력 자동차 잡지 〈모터트렌드〉의 중국 합작사로서 전체 자동차 전문지 중에서 인지도 4위의 영향력 있는 매체이며 매년 타이어 테스트를 진행해 수상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N’ FERA SU4는 최고성능, 드라이빙 퍼포먼스 타이어로 유수의 타이어 브랜드와의 테스트를 통한 경쟁에서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특히 제동거리 기록이 참여 제품 중 가장 우수했으며, 안정성과 접지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지난 6월 24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3 최고기업 대상’ 시상에서 한국경영인협회로부터 타이어부문 최고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2013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은 국내 기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쟁력도 함께 제고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수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성과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한 수익성 향상, 그리고 혁신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 수상,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14년 연속 국내 주주총회 1호 기업이란 타이틀과 함께 2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협력의 모범기업으로 꼽히기도 한 넥센타이어는 최근 창녕공장에 3,300여억 원이 추가 투입, 2차 증설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미국 크라이슬러에 신차타이어(OE) 공급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신차타이어(OE)시장에서 연이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8월 미국 3대 완성차 업체 중 한 곳인 크라이슬러의 신차타이어(OE) 공식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양산 중인 2개 모델에 타이어 공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급 계약은 크라이슬러를 대표하는 중형 패밀리 세단인 2014년형 ‘크라이슬러 200’과 ‘닷지 어벤저’ 모델로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되어 북미 시장 판매용 차량에 적용되며, 넥센타이어 CP671 제품이 17인치 규격으로 장착된다.

넥센타이어는 “창녕 신공장 건설 이후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차종 이외에 크라이슬러그룹의 다른 모델도 현재 공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미주지역 OE시장에서 넥센타이어 제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나는 이런 초능력을 갖고 싶다!

여러분도 한 번쯤 초능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해본 적이 있으시죠?
언제,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던가요? 가슴 속에 상상으로만
품어왔던 나만의 초능력, 한번 펼쳐볼까요?



지난여름, 안방극장을 열광케 했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기억하시나요? 두 주인공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이 매주 수·목요일을 기다리게 만들었죠. 게다가 주인공 박수하의 '상대의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시청자들에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더라면……."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초능력을 소재로 삼은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초능력자>에서는 남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영화 <엑스맨>에서는 변신능력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죠. 특히 <엑스맨>의 주인공 울버린은 삼중 뼈와 엄청난 치유능력까지 지닌 것으로 나오고요, 소설 <퇴마록>의 주인공들은 동양의 주술을 사용하며,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주인공인 마코토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초능력은 몹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렵거나, 난처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전날 과음으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 회의에 지각할 위기! 지금 딱 1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피로가 쌓이고 쌓여 유난히 회사에 출근하기 싫을 때 나랑 똑같은 모습의 분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어려운 회식자리에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면?

눈짓만으로 물건을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면?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나는 이런 초능력을 갖고 싶다!"

자, 이제 우리 사우들의 기발한

상상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



“넥센 사우들이 갖고 싶은 초능력은??”

너와 나의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 텔레파시!

분신술! 양육과 회사 일과 자기계발을 동시에 하고 싶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영화 <점퍼>에 나오는 순간 이동. 차 막힐 일 없고 어디나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병이나 상처도 순간 대면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

외국어 교재 한 번만 읽어도 그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 나는 글로벌 인재~

페서네이트. 성별 관계없이 상대방을 매료시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의 추종자들을 무수히 만들어 내고 싶다.. ㅋㅋ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량이 발생할 때, 내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여러 사람의 수고도 덜 수 있고 나도 인정 받고,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일할 듯!

기합 한 번으로 회사 식당 메뉴를 순식간에 호텔 음식처럼 바꾸는 능력.

월말이 오지 않게 만드는 능력~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게 만들고 싶다!

타이어를 내공의 힘으로 적재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이들의 초능력을 포함해 상대가 가진 능력을 흡수하는 능력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나만의 조제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약 먹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다.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이중석처럼 생기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 왔던 한 가지 초능력. 투명인간이 되어 갈 수 없는 곳에 가보고 싶다.

누구든지 잠들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빠 깨우는 우리 딸 꼭 자게 해주고 싶다~ ㅋㅋ

현재를 과거로 돌리는 능력.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쓰고 싶다.

예지력. 나나 내 주변인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안 좋은 일은 내가 나서서 바꾸려고!



기쁜 우리 좋은 날

〈헬로우넥센〉이 이번 호부터 사우들의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는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요. 결혼, 출산, 돌잔치 등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날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헬로우넥센〉이 당신의 좋은 날을 동네방네
소문내 드립니다!

♥ 개업을 축하합니다!

타이어월드 오포점	2013. 7. 25
타이어테크 인화점	2013. 8. 24

♥ 득녀를 축하합니다!

유럽팀 박현준 사우	2013. 7. 18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창)관리팀 국민철 사우	2013. 7. 20
검사파트 구정모 사우	2013. 8. 4
고객만족팀 안철모 사우	2013. 8. 17
RE개발4팀박재규 대리	2013. 8. 17
금형관리파트 구본민 사우	2013. 9. 1
총무1팀 김철홍 사우	2013. 9. 7

♥ 돌잔치를 축하합니다!

제품평가팀 전상길 사우	2013. 7. 23
재료파트 김종민 사우	2013. 7. 27
정보전략팀 조상형 대리	2013. 8. 10
물류팀 박재훈 사우	2013. 8. 10
UHP파트 마창수 소장	2013. 8. 11
강남지점 송호섭 대리	2013. 8. 13
(창)전기파트 이동원 과장	2013. 8. 17
가류파트 김세중 사우	2013. 8. 21
영업기획팀 박승기 대리	2013. 8. 24
중부지사 윤수영 대리	2013. 8. 24
총무1팀 강익순 사우	2013. 8. 25
가류파트 양성준 사우	2013. 9. 6
(창)전기파트 권광수 대리	2013. 9. 7

온다는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가을.

긴 소매 옷을 꺼내 입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실, 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봄에는 꽃향기를 맡고, 여름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가을엔 청명한 하늘을 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선선하다고? 단풍이 물들었다고?

이러다가는 올해도 몇 마디의 말만으로 가을이 왔다 간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가까운 공원도 좋고 야외 옥상도 좋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OK.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 따라 시선도 옮겨보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몸속 깊숙이 가을 향기를 담아 봅시다.

몸과 마음을 가을로 물들여 보는 거예요.

왔었나 싶다가도 어느샌가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 가을이

겨울로 발길을 내딛기 전에 말입니다.

Epilogue

지난 호 정답

2	1	8	6	7	3	9	4	5
6	3	9	4	5	2	1	8	7
7	5	4	9	1	8	2	6	3
1	7	5	2	8	9	6	3	4
8	9	6	5	3	4	7	1	2
3	4	2	1	6	7	5	9	8
9	6	7	8	4	5	3	2	1
4	2	3	7	9	1	8	5	6
5	8	1	3	2	6	4	7	9

퀴즈 당첨자

〈여행스케치〉 당첨자

- 조재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강혜영 경남 양산시 남부동
- 김수현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 김현영 경남 김해시 삼정동
- 이현성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상품권 당첨자

- 정들옥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 황진아 부산시 북구 화명2동
- 한지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진효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 박기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머리가 좋아지는 스도쿠

		6	9		2		1	3
2		1		3				8
	3	9			6	4	2	
9	6			7	8	3		1
	8	2	1			7	9	
		5	4	9			8	6
	9	8	3			6	7	
6				8	9	1		
	2		6		1	8		9

게임 방법 : 가로줄 9칸, 세로줄 9칸, 작은 상자 3x3=9칸에 1~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가로줄, 세로줄에 각각 1~9까지의 수를 중복, 누락 없이 하나씩만 넣고, 3x3칸의 작은 상자에도 1~9까지 겹치지 않게 숫자를 채워보세요.

참여해 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무심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nexen) 메시지,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10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15일까지

아래 사보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 처리 됩니다.

• 담당자 경영관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사내독자 부서

사외독자

이름 (남 · 여)

주소

연락처 E-mail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1.1~2013.12.31

양산우체국 승인
제 23호

받는 사람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사보담당자 앞

(전화 055-370-5283)

NEXEN TIRE 넥센타이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

- 〈헬로우넥센〉에 전하고 싶은 의견(좋은 기사, 아쉬운 기사, 바라는 점 등)
-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전화 055-370-5283 / 메일 so00526@nexentire.co.kr)

● 머리가 좋아지는 스도쿠

		6	9		2		1	3
2		1		3				8
	3	9			6	4	2	
9	6			7	8	3		1
	8	2	1			7	9	
		5	4	9			8	6
	9	8	3			6	7	
6				8	9	1		
	2		6		1	8		9